

2018 학술세미나



대학통일교육 발전방안 모색



| 일시 | 2018년 6월 11일(월), 13:00-18:00

| 장소 | 국민대학교 본부관 101호 학술회의장

| 주최 | 한국정치학회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 후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국민대학교

프 · 로 · 그 · 램

시간	내용
13:00~13:20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민 의 례 · 환 영 사 : 유지수 총장(국민대) · 축 사 : 조명균 장관(통일부)
Session 1	
13:20~15:10 (1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홍양호 원장(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 기 조 발 표 : 이미경 교수(통일교육원), “평화지향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 사 례 발 표 : [통일·북한 강좌] 임상순 교수, “평택대 사례 발표” [선도대학] “송실대 사례 발표” · 토 론 : 전권천 교수(세종대), 허재영 교수(연세대)
15:10~15:20 (10분)	Break Time
Session 2	
15:20~16:30 (7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이정철 교수(송실대) · 사 례 발 표 : [옴니버스 특강] 박광기 교수, “대전대 사례 발표” [선도대학] “충남대 사례 발표” [선도대학] “아주대 사례 발표” · 토 론 : 박철수 교수(한라대), 추병완 교수(춘천교대), 여현철 교수(국민대)
16:30~16:40 (10분)	Break Time
Session 3	
16:40~18:00 (8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회 : 김학성 교수(충남대) · 사 례 발 표 : [옴니버스 특강] 이기완 교수, “창원대 사례 발표” [통일·북한 강좌] 이경원 교수, “진주교대 사례 발표” [선도대학] “서울대 사례 발표” · 토 론 : 송정호 교수(우석대), 하상섭 연구위원(안양대), 조정아 선임연구위원(통일연구원) · 종 합 토 론



환 영 사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총장 유지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회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학통일교육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함께 이제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는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시련의 시간을 뒤로하고 한반도에 따스한 평화의 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여 남북관계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지속적인 평화공존과 평화번영을 지향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통일의식은 날이 갈수록 드높아질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은 기성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분단의 장기화, 개인주의 성향의 만연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을 단지 젊은 세대들의 문제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 4차 산업혁명, 그리

고 세계경제대공황으로 기인한 빈곤, 실업, 양극화의 문제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접근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통일 대한민국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사회가 통일교육에 있어 더욱 높은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우리 사회를 선도해 나갈 미래의 주역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대학생들의 통일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양한 통일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통일선도대학을 비롯하여 대학통일교육현장을 이끌어 오신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노력과 희생이 결코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데 헛되지 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대학사회 내에서 대학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가감 없는 제언과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정치학회와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그리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례

>>> Session 1

기조발표 : “평화지향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 이미경 교수 (통일교육원) 1

사례발표 : [통일·북한 강좌] “평택대 사례 발표” 임상순 교수 (평택대) 5

[선도대학] “송실대 사례 발표” 19

>>> Session 2

사례발표 : [옴니버스 특강] “대전대 사례 발표” 박광기 교수 (대전대) 23

[선도대학] “충남대 사례 발표” 45

[선도대학] “아주대 사례 발표” 69

>>> Session 3

사례발표 : [옴니버스 특강] “창원대 사례 발표” 이기완 교수 (창원대) 91

[통일·북한 강좌] “진주교대 사례 발표” 이경원 교수 (진주교대) 105

[선도대학] “서울대 사례 발표” 117

Session 1 [기조발표]

“평화지향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이미경 교수

(통일교육원)

평화지향의 통일교육과 통일교육 발전방향

이미경 교수 (통일교육원)

Session 1 [사례발표]

[통일·북한 강좌] “평택대 사례 발표”

임상순 교수

(평택대)

대학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 평택대학교 통일·북한강좌지원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임상순 교수 (평택대)

I. 들어가며

평택대학교는 2018년 1학기에 통일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통일부가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평택대학교는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다른 대학들과 다른 2가지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택대학교는 1904년 한반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소천하신 미국 선교사 아더 피어선 목사의 유지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다. 이에 따라 본교는 학생들에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둘째, 평택대학교는 2018년 완공될 예정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험프리스 기지가 위치해 있는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다. 평택시민들과 학생들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직접적인 안보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설적이지만, 평택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지역이면서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통일 평화지향 지역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2016년 2월 19일 기초의회인 평택시의회는,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평택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평택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

립·시행해야 하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한국 대학교육의 일반적인 현실에서 평택대학교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학내적,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평택대학교는 2017년 3월 1일자로 통일학 전공교수를 채용하여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1학년 교양필수과목으로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개설하여 매년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기초이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융복합 전공으로 ‘통일학 교양전공’을 설치하여 2017년 12월에 1학년 희망학생 중에서 18명을 선발하였다. 2018년 12월에 1학년 학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평택대학교는 통일부의 ‘통일·북한 강좌’ 사업의 지원을 받아 ‘북한 사회문화의 이해’ 과목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본 강좌 수강생 및 일반 학생들 중 통일에 관심이 있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철원지역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이를 통해, 통일학 전공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통일, 북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였고, 궁극적으로 ‘통일 한반도의 주역으로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Ⅱ. 통일·북한강좌 지원 사업 중 강의 운영

본 강좌의 특징이자 차별성은 한 강의에 남북한 출신 박사 2명이 동시에 투입되어 ‘북한사 사회문화의 이해’를 남북한의 비교론적 시각에서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하나의 새로운 ‘통일교육 모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 강좌에는 모두 22명이 수강신청 하였는데, 이중 2학년 학생이 15명, 3학년 학생이 7명이었다. 주차별 강의 주제 및 핵심내용 그리고, 강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각 주 강의 주제와 핵심내용

<표 1> 주차별 강의 주제 및 핵심내용

주차	강의 주제 및 핵심내용
1주	(1) 주제 :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핵심내용 : - 북한적 현상에 대한 엇갈린 해석 - 북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2주	(1) 주제 : 주요쟁점을 통해본 북한사회 허와 실 (2) 핵심내용 : 김일성 동상 참배와 북한주민의 거짓 자아
3주	(1) 주제 : 주요쟁점을 통해본 북한사회 허와 실 (2) 핵심내용 : 북한군 의식변화 사실인가?
4주	(1) 주제 : 북한 시장과 붉은 자본가 (2) 핵심내용 : 붉은 자본가 유래와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
5주	(1) 주제 : 북한시장과 체제변화 (2) 핵심내용 : 북한의 전국시장실태와 최근 상행위 양상
6주	(1) 주제 : 주요주제를 통해본 북한사회 허와 실 (2) 핵심내용 : - 신체왜소 발생의 역사적 배경과 발생과정 - 당국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
7주	(1) 주제 : 조해리 창을 통해 본 북한의 생활총화제도 (2) 핵심내용 : - 생활총화제도에 대한 쟁점 - 생활총화제도에 대한 또 다른 이해
8주	중간고사
9주	(1) 주제 : 북한주민 일상의 정치화, 군사화, 신분화 (2) 핵심내용 : - 북한주민의 일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 일상의 특징과 행태
10주	(1) 주제 : 북한체제와 주민심리 (2) 핵심내용 : - 정권구조에서 본 주민 심리형성 - 북한주민 심리행태
11주	(1) 주제 : 교육제도와 대학생 생활을 통해본 북한 (2) 핵심내용 : 북한의 대학교 운영과 민족간부
12주	(1) 주제 : 북한 대학생의 대학교 생활 (2) 핵심내용 : 남북한 대학교 학과생활과 기숙사생활을 살펴보았다.
13주	(1) 주제 : 퀴즈를 통해 본 남북한 사회 (2) 핵심내용 : 북한사회전반에 대해 퀴즈를 통해 알아보았다.
14주	(1) 주제 : 북한사회 수령교와 복음 (2) 핵심내용 : - 북한주민의 수령교에 대한 이해 - 수령교의 작동행태와 영향
15주	기말고사

위의 강의주제 및 핵심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 강좌에서는 북한 출신 박사만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심리와 자아 그리고, 의식변화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어졌다. 남한 출신 박사는 북한 출신 박사의 설명 중에서 남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남한 사회와 비교해서 쉽게 설명해 주거나, 북한 출신 박사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효과적 전달에 기여하였다.

2. 강의 진행 방식

본 강좌의 과목인 ‘북한사회문화의 이해’는 3학점 과목으로 주당 3시간, 총 15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주 강의 진행방식을 3개 차시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차시별 강의 활동

차시	강의 활동
1차시	북한 출신 강사의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
2차시	남한 출신 강사의 해당 주제에 대한 남한과의 비교, 그리고 질문 제기
3차시	- 북한 출신 강사와 남한 출신 강사의 토론 - 학생들의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 및 남북한 출신 강사들의 정리

남북한 출신 두 강사는 매번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사전에 논의하였고 해당 주제에 대해 각자 강의 자료를 준비하였다.

1차시가 시작되면 먼저 출석을 엄격히 부른 후 북한 출신 강사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준비된 ppt 자료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남한 출신 강사는 뒷자리에 학생들과 같이 앉아 수업을 경청하면서 남북한의 차이와 질문거리 등을 준비하였다. 남한 출신 강사가 학생들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2차시에서는 남한 출신 강사가 북한의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상을 남한사회와 비교하면서 강의하였는데 특히 남한사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 인식하지 못한 부분 등을 강의하였다. 이때 북한출신 강사는 뒷자리에 앉아 강의 내용을 경청하면서 질문거리와 토론거리를 찾았다.

3차시에서는 남북한 출신 강사가 함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서로 질문하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어 학생들의 질문도 받고 서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수업의 몰입도가 높았으며, 학생들 또한 진지하게 참여하였다.

수업을 진행한 남북한 출신 강사들이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강사들은 요즘 청년학생들이 영상에 익숙한 세대인 것을 감안하여 수시로 수업과 관련이 있는 짧은 동영상들을 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집중을 유도하였다.

3. 강의에 대한 평가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강학생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강학생 중 6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하였다.

(1) 양적 평가 결과

강의에 대하여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가지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강의에 대한 양적 평가 결과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자 수(명)	12	6	4	0	0
퍼센트(%)	54.5	27.3	18.2	0	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22명의 학생 중에서 81.8%인 18명의 학생이 강의에 대해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을 표시했다. 이 수치는 평택대학교 일반전공 강의 만족도 평균 80%를 넘는 것이다.

(2) 질적 평가 결과

강의에 참여한 22명의 학생 중에서 학과를 고려하여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다. 주요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북한에서 오신 분과 수업을 해서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 남북한 사회비교를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보기 어려운 자료, 희귀한 자료 등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잘 정리해서 보여 주었다.
- 남북한 교수님 두 분이 진행하시는 토의 수업을 통해 북한에 대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북한에 대한 사소한 점, 북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 남북한 교수님이 각자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셔서 남북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었다.
-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통일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 북에서 오신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북한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느낄 수 있었다.
- 북한 출신 교수님의 발음과 억양이 분명하지 않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었다.
- 수업용 교재를 개발해서 활용한다면 예습, 복습에 좋고, 수업에 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통일·북한강좌 지원 사업 중 현장학습 운영

통일·북한강좌 지원사업에서 현장학습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대학에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책임교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현장학습에 부담을 느끼는 교수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 대학은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강의와 더불어 분단 현장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북한과 통일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선택하였다. 현장학습 장소로는 철원지역을 선정했다. 철원지역은 일제시대 때 경의선의 중간지점이었고, 해방이후 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북한이 지배하던 지역이었으며, 6.25전쟁 때 치열한 격전지였고, 6.25전쟁이후 남북 분단의 최전선으로서 북한이 판 땅굴이 있는 역사와 안보의 현장이다. 이 현장학습에는 강좌 수강학생과 통일학 전공학생, 통일과목 성적 우수학생 총 30명이 참가하였다.

1. 현장학습 일정

<표 4> 현장학습 일정표(여행사와 협의하여 선정)

1 일 차	08:00	평택대학교 집결 / 인원 확인 및 주의사항 전달	평택대학교
	08:10 ~ 11:10	이동 (출발지 ⇄ 백마고지 전적지)	170Km 3H
	11:10 ~ 11:50	백마고지 전적지	
	11:50 ~ 12:10	이동(백마고지 전적지⇄고석정)	
	12:10 ~ 13:00	중식 및 고석정 자유 견학	*출입관련 사전조치
	13:00 ~ 13:20	이동 (고석정 ⇄ 제2땅굴)	
	13:20 ~ 14:00	제2땅굴 견학	전문 해설사
	14:00 ~ 14:10	이동(제2땅굴 ⇄ 철원평화 전망대)	
	14:10 ~ 14:40	철원 평화 전망대	비디오 시청 모노레일카 이용
	14:40 ~ 14:50	이동(철원 평화전망대 ⇄ 월정리역/두루미관)	
	14:50 ~ 15:10	월정리역	전문 해설사
	15:10 ~ 15:20	이동(월정리역/두루미관 ⇄ 노동당사)	
	15:20 ~ 15:40	노동당사	전문 해설사
	15:40 ~ 18:00	이동(노동당사 ⇄ 평택대학교)	안성휴게소
	18:00	학교 도착 후 해산	

위의 일정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철원지역의 주요 역사, 안보 답사지가 방문 지역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빠듯한 일정으로 현장학습이 진행되었다.

2. 현장학습 진행과 평가

(1) 현장학습 진행

현장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과 배움이다. 안전을 위한 조치로 조 편성,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배움을 위한 조치로 현장학습 장소에 대한 사전 조사 과제 부여, DMZ 전문 가이드 동행이 이루어졌다.

참가학생 30명을 3개 조로 편성하였고 각 조에는 3학년 학생 중 통일학 전공 학생으로 조장을 임명하였다. 모든 학생들에게 목걸이 명찰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했으며, 각 조의 명찰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걸이 명찰은 식당, 땅굴 등에서 신분증의 역할을 대신했으며,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구별하고 인원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차량 탑승 후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전체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안전교육은 ‘전체 여행중’, ‘차량 탑승시’, ‘차량 이동중’, ‘여행지에서’로 구분하여 각 경우 학생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킬 것을 당부했다.

현장 학습 2주전에 학생들에게 현장학습 장소인 철원지역에 대한 광고 홍보물을 만들어 제출하게 했다. 이 홍보물 제작을 성적(10점)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모든 학생이 홍보물을 제출했으며, 그 수준도 매우 우수했다.

DMZ 전문 가이드인 장승재 DMZ 관광(주) 사장이 현장학습의 전문 해설사 역할을 맡아 주었다. 장승재 사장은 DMZ문화원 원장, DMZ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신한대학교 DMZ비전연구소장 겸 교수를 맡고 있을 정도로 DMZ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의 한 명이다. 장승재 사장은 철원으로 향하는 차량에서부터 평택대학교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철원지역과 DMZ 지역의 특징과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2) 양적평가 결과

통일사업단에서 제공한 현장학습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양식을 활용한 만족도 조사의 결

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현장학습에 대한 평가 결과

	강좌와의 연관성	장소의 적절성	전반적 만족도
매우 그렇다(명/%)	28(93.3%)	28(93.3%)	27(90%)
조금 그렇다(명/%)	2(6.7%)	2(6.7%)	3(10%)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참여학생 30명 중에서 90%인 27명 이상이 현장학습의 적절성과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여기에는 철원이라는 지리적 특성, 전문 가이드의 안내,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사 제공, 화창한 날씨, 강의를 함께 들은 친한 학생들과의 동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질적평가 결과

현장학습에 참여한 30명 중에서 각 전공을 대표하는 학생 6명을 선정하여 심층 면접방식으로 현장학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주요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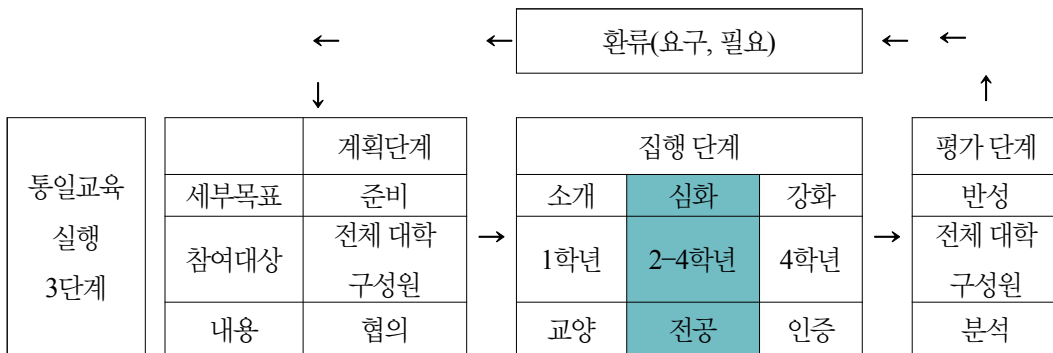
- 분단의 아픔을 간접적으로라도 느껴 보았던 시간이었다.
- 철원 이외의 통일, 안보 현장에도 가 보고 싶어졌다.
- 땅굴에 들어가서 땅굴이 발견되던 당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남북의 역사가 공존하는 철원지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좋았다.
- 이론적인 설명과 정보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이라 더 좋았다.
- 월정리역의 끊긴 철도가 분단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 지금의 우리가 있게 해준 국군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 일정대로 진행하려다 보니 시간이 촉박하여 깊이 있게 답사지역을 살펴보지 못했다.
-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체력적으로 지치고 힘들었다.
- 집이 원거리인 학생들을 위해 출발시간을 오전 9시~10시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장학습에서 안보, 통일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꼈고, 각각의 답사지역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IV. 결론 -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이 평택대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의미

평택대학교가 추구하는 통일교육 모델은 ‘참여형 대학 통일교육 모델’이다. 이 모델은 남 플로리다 대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프로젝트(GCP)’의 사례분석을 통해 설정되었다. ‘참여형 대학 통일교육 모델’을 개념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참여형 대학 통일교육 모델’의 개념도



위 모형을 참조하여, 평택대학교는 통일교육을 계획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2018년 현재는 집행 단계로서 1학년 교양필수인 ‘통일한반도의 미래’라는 과목을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하여 소개하고, ‘피어선 통일학 교양전공’을 통해 2~4학년 학생들에게 통일, 북한에 대한 내용을 심화하여 가르치며, 이들 학생 중에서 관련 과목 21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전공졸업장과 함께 ‘통일학 교양전공’ 졸업장을 수여하게 되었다. 평가와 관련해서, 4년에 한 번씩 ‘피어선칼리지’ 평가위원

회의 평가를 통해 ‘통일한반도의 미래’를 교양필수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융복합전공 위원회에서 매년 ‘통일학 교양전공’을 포함하여 모든 융복합 전공의 확대, 축소, 유지, 폐지가 정해진다.

2018학년도 1학기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선정과 집행을 통해, 학교 재정의 어려움과 1학년 정원 감축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전공 위원회에서 별다른 반대 없이, 심화단계인 ‘피어선 통일학 교양전공’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한 학기 동안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경비의 늦은 지급(5월 초)으로 인해 2명의 강사들에게 강사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회의비, 도서비 등 경비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5월 8일 예정된 현장학습 계약을 체결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함께 책임교수에게 요구하는 행정적, 교육적, 심리적 부담이 무척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 덕분에, 남북한 출신 강사 2명이 ‘북한 사회문화의 이해’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통일, 북한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함께 철원지역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올 수 있었다. 이 사업을 기획한 통일부 담당 공무원분들과 사업을 집행 관리한 사업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Session 1 [사례발표]

[선도대학] “숭실대 사례 발표”

조은희 교수

(숭실대)

“숭실대 사례 발표”

조은희 교수 (숭실대)

Session 2 [사례발표]

[옴니버스 특강] “대전대 사례 발표”

박광기 교수

(대전대)

대전대학교 통일교육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성과와 과제

박광기 교수 (대전대)

1. 대전대학교 통일교육 옴니버스 특강 사업의 목표

-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남북한은 상대 체제에 대한 갈등을 넘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깊이 내면화 되고 있음.
 - 70여년의 분단 상태가 만들어 낸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정서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들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알아가기가 중요함.
-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주로 경제적 부분의 통일편익이 강조됨.
 - 통일한국이 되면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임.
- 더불어 경제적 수치로써의 통일편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식적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일교육이 필요함.
 -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인식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의 통일과 통일의 마음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사업은 정서적, 인식적 차원에서 대학생의 통일인식을 높이고 지역차원의 통일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임.
 - 탈북민과 토크, 문화가 결합된 통일문화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흥미와 재미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함.
- 본 사업의 주요 대상 학생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과 정치학 등 교양과정을 수강하는 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존의 정치미디어학과, 언론홍보학과와 융합된 학제간 연구와 강의가 실시되고 있음.

- 기존 정치외교학과와 언론홍보학과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북한학과 언론홍보 분야의 융합 강의를 통해 통일의 다차원적 인식을 제고하며 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둬.

2. 대전대학교 통일교육 현황

2-1. 기존 통일교육 상황

- 본교 정치외교학과와 교육목표는 21세기의 무한경쟁이라는 도전에 응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즉 시대적 통찰력과 실사구시적 전문능력을 겸비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나아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음.
- 본교는 정치학과 언론학의 융합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강의목표를 바탕으로 통일교육 역시 학제간 결합을 통한 다차원적 인재 양성에 주안점을 둬.
- 학생회 자체 통일북한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의 대화를 강의중에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대학생간의 상호 이해도를 제고함.
- 북한통일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학과 교수들이 <한반도와 통일문제>라는 단행본을 집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교육은 물론 현장학습을 병행하고 있음.



2-2. 관련 정규 강의 현황

- 정치외교학과 강의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규과정으로서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관계’, ‘동북아지역정치론’, ‘국제정치와 미래국가전략’이라는 과목을 개설함.
 - 이 과목은 한반도 문제가 민족 내부문제임과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세계 정세와 한반도라는 큰 주제 아래 통일문제를 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설됨.
- 본교 강의는 기초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 종합과정으로 구분하여 통일, 북한 문제에 점진적 접근을 통해 관련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종합과정의 정치학세미나 강의는 통일, 북한관련 다양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경험과 실제 정책추진과정에 대한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있음.
- 기초과정의 국제정치학개론에서 남북한 문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과정을 습득하고, 발전과정에서 한반도통일과 주변국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함.
- 아울러 본교는 군사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북한군사론, 북한정치론, 남북한관계론 등의 수업을 통해 직업군인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을 개설하여 올바른 대북관 및 통일관 정립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통일북한 관련 관심도 제고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정규과정에서 북한관련 과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학과간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3. 통일교육 옴니버스 특강 시행 내용

3-1. 일반 개요

- 본 사업은 총 3개 강좌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는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특강이 진행됨.

	제목	강사
1강	통일전문기자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2강	문화로 여는 통일: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토크콘서트	강동완, 한선희, 차형욱, 김지수(탈북민 통일토크콘서트 팀)
3강	통일, 가지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정치외교학과와 정치학, 미디어학을 수강하는 재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통일, 언론 분야 최고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함.
 - 아울러 학문간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인문사회분야는 물론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교양 관련 수업으로 연계하여 진행함.
- 3강은 탈북민과의 전문 통일문화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남북한 통합의식을 높임.
-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 학교 내 부착하고 타 학과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일수로 인정하여 참여도를 제고함.
- 일반 강의실이 아닌 대강당에서 전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사업으로 추진하여 학교 본부에서 주관하는 특강이 되도록 할 것임.

3-2. 특강 개요

1강	통일전문기자에게 통일의 길을 묻다	이영종(중앙일보 통일전문기자)
----	--------------------	------------------

- 제1강을 담당할 이영종 소장은 중앙일보 편집국 통일문화연구소 소장으로 현재 통일전문 기자로 중앙일보에 북한오딧세이 기획기사를 연재하고 있음.
-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저작을 통해 북한 권력구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은 물론 통일북한 관련 전문기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강의함.



■ 특강 만족도 조사 결과

※ 옴니버스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추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Q01. 소속 단과대학

- | | | |
|----------|----------|---------|
| ① 인문대학 | ② 자연과학대학 | ③ 법과대학 |
| ④ 사회과학대학 | ⑤ 사범대학 | ⑥ 경영대학 |
| ⑦ 공과대학 | ⑧ 생명과학계열 | ⑨ 예체능계열 |
| ⑩ 기타 | | |

Q0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0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평가문항]

1. 옴니버스 특강이 귀하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조금 도움이 된다 |
|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옴니버스 특강이 전체 옴니버스 특강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2) 조금 그렇다 |
| 3) 별로 그렇지 않았다 |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

3. 옴니버스 특강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2) 조금 그렇다 |
| 3) 별로 그렇지 않았다 |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

2강	문화로 여는 통일: 탈북민과 함께 하는 통일문화토크콘서트	강동완, 한선희, 차형옥, 김지수 (탈북민 통일토크콘서트 팀)
----	------------------------------------	---------------------------------------

- 기존의 강연식 교육방식이 아닌 참석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와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지함으로써 다수의 대상자들과 공유함.
- 과외활동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한문제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지역대학생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
 - ‘찾아가는 통일문화축제’ 형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지역에서의 통일논의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음.
- 남북한 문화 소통의 의미로 북한 아코디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문화로 소통하는 남북한의 모습을 연출함. 아울러 북한음악과 붓글씨 등 문화를 통해 현장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통일의 문화적 접근을 모색함.
- 전국 대학 및 중고등학교, 일반 시민 대상 월 평균 15회 행사를 개최하며 큰 호응을 받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 특강 만족도 조사 결과

※ 옴니버스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추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Q01. 소속 단과대학

- ① 인문대학 ② 자연과학대학 ③ 법과대학 ④ 사회과학대학 ⑤ 사범대학
⑥ 경영대학 ⑦ 공과대학 ⑧ 생명과학계열 ⑨ 예체능계열 ⑩ 기타

Q0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0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평가문항]

1. 옴니버스 특강이 귀하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조금 도움이 된다 |
|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2. 옴니버스 특강이 전체 옴니버스 특강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2) 조금 그렇다 |
| 3) 별로 그렇지 않았다 |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

3. 옴니버스 특강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 | | |
|---------------|---------------|
| 1) 매우 그렇다 | 2) 조금 그렇다 |
| 3) 별로 그렇지 않았다 | 4) 전혀 그렇지 않았다 |

4. 옴니버스 특강을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 | | |
|---------------|---------------|
| 1) 매우 추천한다 | 2) 조금 추천한다 |
| 3) 별로 추천하지 않다 | 4) 전혀 추천하지 않다 |

■ 기타: 개선할 점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관식)

단과대학	인문대	자연대	법과 대학	사회과학 대학	사범 대학	경영 대학	공과 대학	생명과과학 계열	예체능계 열	기타
Q01.	4명			11명		11명	3명		3명	17명
성별	남성					여성				
Q02.	22명					27명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Q03	13명		18명		10명			8명		
문항수	문항 명						매우 도움	조금 도움	별로 추천안 함	전혀 추천안함
1번 문항	1. 옴니버스 특강이 귀하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6명	13명	—	—
2번 문항	2. 옴니버스 특강이 전체 옴니버스 특강 프로그램과 연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9명	10명	—	—
3번 문항	3. 옴니버스 특강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까?						39명	10명	—	—
4번 문항	4. 옴니버스 특강을 다른 학생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까?						38명	10명	1명	—

– 총 49명중 48명(97%)이상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실제로 보기 어려운 동년배(대학생 나이) 탈북민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강동완 교수 진행 아래,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과 탈북민의 답변을 통해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사용하던 비디오 플레이어, 담배 등을 직접 보고 만질 기회도 주어졌는데, 이런 점들로 ‘수동적인 특강’이 아닌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3강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손기웅(통일연구원장)
----	-----------------------	-------------

- 제1강을 담당할 손기웅 원장은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뒤 독일 베르크호프 갈등과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한국DMZ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코리아DMZ협의회 공동대표,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등을 역임함.
- 대표 저서는 ‘통일, 가지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2015)’,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1,2(2009)’, ‘독일 통일 쟁점과 과제 1, 2(2009)’ 등이 있음.



- 손기웅 원장의 강의는 통일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독일통일 사례와 시사점을 통한 한반도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임.

■ 특강 만족도 조사 결과

※ 오니버스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추후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파악 및 운영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한 것으로 **통계 자료로만 사용되며, 개인별 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특성문항]

Q01. 소속 단과대학

- | | | |
|----------|----------|---------|
| ① 인문대학 | ② 자연과학대학 | ③ 법과대학 |
| ④ 사회과학대학 | ⑤ 사범대학 | ⑥ 경영대학 |
| ⑦ 공과대학 | ⑧ 생명과학계열 | ⑨ 예체능계열 |
| ⑩ 기타 | | |

Q0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03.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평가문항]

1. 오니버스 특강이 귀하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조금 도움이 된다 |
| 3) 별로 도움이 안 된다 | 4) 전혀 도움이 안 된다 |

3-3 특강 주요 성과

- 손기웅 원장의 강의를 통해 통일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독일통일 사례와 시사점을 통한 한반도 적용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강의를 되었다고 평가함.
- 이영중 소장의 강의를 통해 후계자 김정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권력구도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통일북한 관련 기사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이해하게 됨.
- 강동완 교수와 함께 한 탈북민 토크는 기존의 강연식 교육방식이 아닌 참석자들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와 문화공연을 접목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현장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공지함으로써 다수의 대상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과외활동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북한문제를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에 의의를 가지며 지역대학생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찾아가는 통일문화축제’ 형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지역에서의 통일논의를 확장하는데 성과가 있음.
- 남북한 문화 소통의 의미로 북한 아코디언 연주자의 반주에 맞추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문화로 소통하는 남북한의 모습을 연출함. 아울러 북한음악과 붓글씨 등 문화를 통해 현장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고 통일의 문화적 접근을 모색한 것으로 평가됨.
- 기존의 강의식 통일교육과 탈북민이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를 적절히 융합하여 시행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특정 학과만의 행사가 아닌 다양한 학과와 전공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제의 폭을 확대하고 통일교육 이후 실천하는 현장중심전문가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함.

3-4 통일캠프

연
장

부산지역 특화에 기반한 체험인지형 통일투어

<배경 및 주제>

■ 지역특화에 기반한 문화기행

- 부산지역은 6.25전쟁의 역사적 유적지는 물론 전쟁과 관련한 스토리가 남아 있는 지역임.
 - 공간으로서의 체험활동을 넘어 콘텐츠 특화를 통한 ‘이야기가 있는 체험통일캠프’ 개최
 - 특히, 6.25전쟁과 관련한 주제를 소재로 한 대중음악과 영화, 연극 등의 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가정체성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
- 부산지역의 탈북민이 가이드로 참여하여 남북한 대학생간 만남을 통해 현장토크로 투어 하는 방식임.
- 임시수도기념관,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영도대교, 40계단 문화관 등일상에서의 통일을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 활용

<부산지역의 체험인지형 통일캠프>



4. 대전대학교 통일교육 옴니버스 특강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

4-1 통일교육 옴니버스 특강의 문제점

- 학생의 참여도 제고의 문제 : 3차의 특강과 1차의 통리캠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옴니버스 특강사업을 처음 실시하였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저조한 편이었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타 학교 행사의 참여로 인한 피로감 누적: ACE사업, LINC+사업 등 학내 학생참여가 필수적인 다른 사업들이 2학기에 집중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참여를 기피
 - 특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동 특강 사업의 참여에 대한 보상 혹은 혜택이 전무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함.
 - 예산 집행의 어려움: 예산의 사업운영비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 예산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 운영 및 참여가 저조함.
- 권역별 사업시행 대학간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강을 담당할 인력풀이 공유되지 않고, 특히 사업을 통한 대학간 학생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이 불가능함.

4-2 예산 사용의 문제점

- 대전대학교의 경우,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고 절약한 이유로 예산 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집행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임.
- 특히 통일캠프시 발생한 학생의 숙박비의 경우, 신청자의 불참으로 인한 숙박비 집행과 학생들의 식비 예산이 부족하여 연구책임자가 개인의 비용(약 473,000원)으로 처리하는 등의 문제는 식비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

당하지만, 불가피하게 참여학생들이 순수한 식비를 초과하였을 경우 인정해 주는 등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사업 수행 대학간 네트워크를 정례화 하여 대학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성과확산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옴니버스특강 지원사업 후속 성과>

■ 대전지역 대학교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일시 : 2017년 12월 5일

장소 : 충남대학교

참여대학교 :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 협약서 : 별첨 참조

대전지역 대학교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대학 통일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의 담당교수는 향후 대전지역 대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 및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사항에 합의한다.

1. 각 대학교는 통일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타 대학교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 특히 비교과분야에서 체험학습, 공모전(학술논문, UCC 등), 대학생 동아리 활동, 명사특강 등을 기획하는 대학교는 타 대학교의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해 각 대학교 담당교수들은 자신의 학교 및 학생들에게 사업의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3.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참여 대학교의 교수진과 학생들은 매년 2회 이상 전문가 및 학생 세미나를 개최하여 통일문제와 관련한 지식 습득과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통일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교의 성공적 사례가 타 지역대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 및 추진경험을 공유한다.

4. 대전지역의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각 대학교의 통일교육 담당교수 1인씩 총 4명이 [협력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지원 임무는 통일교육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사업단에서 맡기로 한다. 위원회는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한 사업과 관련,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실무 및 담당교수들 사이에서 협력 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여 제

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하면, 각 대학교 본부지원의 네트워크의 공식화 및 제도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4개 대학교의 관련 교수들은 향후 농민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대전 및 충청권 대학교로 점차 확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합의된 사항이여 협력이 필요하거나, 어떠한 유권해석 또는 협의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반사항을 [협력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본 합의는 서명 즉시 발효된다.

2017년 12월 5일

대전대학교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담당교수

박 광 기



배재대학교 (통일북한 상좌 지원사업) 담당교수

김 욱



충남대학교 (농민교육선도대학 시립) 담당교수

김 학 성



한남대학교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 담당교수

최 정 진



Session 2 [사례발표]

[선도대학] “충남대 사례 발표”

민병기 교수

(충남대)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성과와 전망

민 병 기

CONTENTS

- 01 충남대학교의 통일교육 여건과 사업계획**
 - 가. 충남대학교의 통일교육 여건
 - 나. 사업방향
 - 다. 추진체계
- 02 2016년~2017년 사업의 추진 성과**
 - 가. 주요 사업 성과
- 03 주요 사업 소개**
 - 가. 통일교육의 체계화
 - 나. 창의적 통일교육
 - 다. 통일교육의 효과성 제고

CONTENTS

04 성과와 평가

- 가. 주요 성과
- 나. 개선 방향

05 2018~2019년 사업계획

- 가. 주요목표
- 나. 사업진행 현황

01. 충남대학교의 통일교육 여건과 사업계획

가. 충남대학교의 통일교육 여건

- 충청권의 거점 국립대학교
- 통일교육을 위한 충분한 교육인프라를 보유
- 통일교육에 있어 체계성과 지속성을 갖지 못함
-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육성 사업』은 대학통일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나. 사업방향

○ 통일인재의 상

“보편적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통일과정과 이후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해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창의적 융·복합형 인재”

○ “통일시대 인재양성에 적합한 통일교육 모델”을 구축

- 미래 한반도 통일의 주역이 될 대학생에 대해 특화된 목표와
전략의 수립을 통해 추진

○ 체계성, 창의성, 그리고 효과성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시대 인재양성
모델을 통해 학생들이 6대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운영

➤ “**STRONG한 통일리더 양성**”이라는 충남대학교 통일교육의
Vision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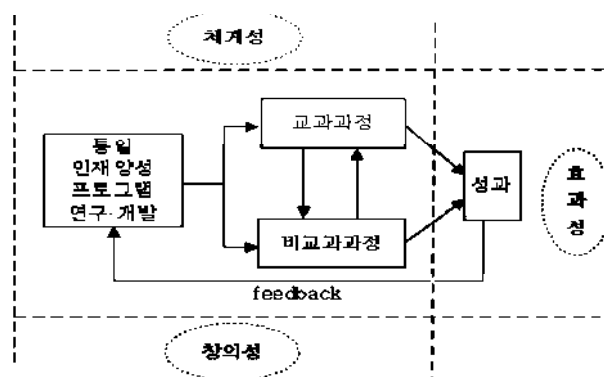


[표 1] 충남대학교 통일교육 6대 핵심역량 목표

	핵심역량	내 용
S	자기관리 Self-management	통일교육전문가와 연구자로서의 역량
T	의사소통 Talk With	수용성 확대와 합리적 토론 역량의 강화를 통한 남남갈등의 완화
R	대인관계 Relationship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시대 리더로서의 역량
O	창의융합 Originality-Convergence	다양한 학문영역의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역량
N	인성 Nature	평화와 인권에 관한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통일관
G	글로벌 Global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에 관해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인식공유

다. 추진체계

- 충남대 “통일시대 인재양성 모델 구축”을 위한 세 목표는 상호 연계를 가지며 복합적으로 구성
 -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방식을 기반으로 효과성을 기대
 - 추진 과정은 이러한 세 요소의 연계성이 통합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



[그림 2] 통일교육사업 추진과정

02. 2016년~2017년 사업의 추진성과

가. 주요 사업 성과

[표 2] 통일교육의 체계화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연도	
		2016년	2017년
연구·개발	통일인재 양성프로그램 연구·개발	○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타선도대학교 네트워크 ○학내통일교육 수요조사 (재학생 5%, 870여 명)	○통일전문교육트랙시범운영 ○통일전문교육TF 콜로키움운영 ○학내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재학생 10%, 1,724명)
	교재 및 교수법 개발	○교재개발 -연계전공 15과목, 교양 3과목 ○교수법 - 1개 과제	○교재개발 -연계전공 4과목 ○교수법 - 2개 과제
	전문가 세미나	○통일교육 관련 대외 협력모델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 초기연도 특성	
강좌운영	교과운영지원 (연계전공)		○통일 관련 강좌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연계전공 강좌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특강강사 및 체험학습 지원 -교육의 질적 제고

1) 통일교육의 체계화

○ 체계성은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표로서

- 일차년도인 2016년에는 연계전공의 개설에 초점을 맞춤
- 대학생의 통일인식 제고에 초점이 맞춰진 비교과과정의 학술적 행사나 홍보는 각 사업마다 연계성을 갖추도록 노력
- 사업참여자에 대한 마일리지 점수 관리를 통해 해외연수기회 부여
-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feedback (교육이후 수요자 조사 등)

○ 2017년에는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과 통일전문교육트랙을 시범운영하여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데 중점을 둠.

- 교과 및 비교과사업의 연계성 증대 노력

[표 3] 창의적 통일교육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연도	
		2016년	2017년
연구·개발	대학(원)생 및 교직원동아리 연구 학습지원	○대학(원)생 및 직원 대상 -통일동아리를 결성 지원 -자발적 학습동기를 부여 -창의적 교육 기반 제공	○지속성 유지 -직원 동아리는 제외 ○학술논문 공모 -학생만 실시 ○대학원 학위논문 지원
	통일학술연구논문 공모	○대학(원)생 및 교직원 대상	
강좌운영	통일 UCC 경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	
	통일기행		○신규사업
	학술제 지원		○신규사업 -통일토론대회 -소통컨퍼런스 : Human Library -PT 대회

2) 창의적 통일교육

- 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교수법 개발 및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추진
- 창의성의 제고를 위해 2017년도에는 융복합 및 전문가 특강 방식의 강의와 더불어 학생들이 스스로 제안한 방식의 교육을 실험적으로 운영
 - 통일전문교육트랙 시범운영을 통해 융복합적 교육
 - 특히 동아리사업과 통일기행의 비교과과정 사업에서는 참여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에서 높은 질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표 4] 통일교육의 효과성 증진

사업종류	사업명	사업연도	
		2016년	2017년
연구·개발	통일교육사업단 홍보	○홈페이지구축, 페이스북 운영 ○언론홍보 ○브로슈어 제작, 각종 포스터 및 현수막	
	교양강의 지원	○베트남 연수 지원	○특강 강사 지원
	접경지역 연수	○동북3선 - 함일유적 증식	○백두산 및 조.중 접경지역 연수
	캠프 및 체험학습	○체험 -판문점, 도라산 및 임진각, 고성전망대, 양구 등 ○캠프	○체험 -지리산 뱀치산 전적관(산정), 거창사건추모관, 칠원, 거제포로수용소,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등 ○캠프 -경남대 합동 캠프 등
강좌운영	월례 통일강좌	○서명인사 초청 특강 - 6회 실시	○기획 통일강좌로 전환
	통일문화제		○통일문화주간 운영
	전문가 세미나		○지역 네트워크 구축 -대전지역 대학 중 옴니버스 강좌와 통일, 북한 강좌 지 원을 받는 대전대, 한남대, 배재대와 지 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대학축제	○대학 축제 기간 운영 -통일동여리 중심	

3) 효과적 통일교육

- 효과성은 학생들이 교육 참여를 통해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험 및 캠프와 통일교육 네트워크 사업 중심
- 2016년도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가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운영에 집중함
 - 해외연수, 체험 및 캠프를 통한 감성적 접근의 기회를
 - 충남대 통일교육의 성과를 충청지역에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타 대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03. 주요 사업 소개

※통일전문교육트랙 시범운영

I. 개 요

- 운영기간: 2017년 11월 01일(수) ~ 11월 30일(1개월 간)
- 강의내용: 통일, 평화, 북한, 인권 등 다수 8강으로 구성(OT 및 종합시험 포함)
- 운영장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하누리강당
- 수강대상: 충남대학교 학부생

II.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 통일 및 평화와 관련한 전문 인재육성 및 교육로드맵 개발
- 2016년과 2017년에 진행한 교재개발의 시연을 통해 보완지점 확인
-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통일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III. 성과

- 당초 수강인원 30명을 목표로 했으나 지원자가 많아 80명으로 증원
- 80명 중 최종 수료자는 56명으로 70%의 수료율
- 수강자들에 대한 평가를 위해 교과과정과 같이 출석 점수를 부여하고 시험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장학금 지급

[표 5] 통일전문교육트랙 프로그램

구분	일정	세부주제	강사 및 연락처
OT	10.27(금) 19:00~20:00	○ 강의계획, 평가 등 설명	
1강	11.02(목) 19:00~21:00	○ 왜 통일교육인가?	김학성 교수(통일교육사업단장)
2강	11.06(월) 19:00~21:00	○ 북한의 역사와 통일운동	허종 교수(국사학과)
3강	11.10(금) 16:00~18:00	○ 북한 인구	전광희 교수(사회학과)
4강	11.13(월) 19:00~21:00	○ 북한의 경제	이 석 연구위원(KDI)
5강	11.16(목) 19:00~21:00	○ 한반도와 남북국제정지	김지운 교수(정치외교학과)
6강	11.20(월) 19:00~21:00	○ 통일문제의 남북갈등	김갑식 연구위원(KNU)
7강	11.23(목) 19:00~21:00	○ 분단과 통일의 영상담론	손병우 교수(언론정보학과)
8강	11.27(월) 19:00~21:00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종합시험)	김학성 교수(통일교육사업단장)
수료식	12.07(목) 18:00	○ 수료식 및 장학금 전달식	

※ 통일기행

I. 개 요

- 사업기간: 2017년 4월 01일(수) ~ 11월 30일
- 대상: 대전지역 대학교 학부생
- 진행방식
 - 통일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 방문, 인물 인터뷰, 분단현장 방문 등을 통해 통일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후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팀 선정

II.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 학생들이 스스로 통일과 관련된 체험을 기획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리더십 함양
- 통일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 기행 실시 이후 팀별 및 개인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확인

[표7] 통일기행 선정 팀 현황

팀명	소속	인원	주제	주요 방문지
걸어서 평화속으로	충남대 화학공학교육과	3	강원도 곳곳에 남아 있는 유적지를 통한 통일의 필요성 제고	양양, 속초, 고성 일대
건물생심	충남대 기계금속공학교육과	3	전쟁의 상처에서 생각해보는 통일	부산
통평위평	충남대 영어영문	3	소설 "태백산맥"을 따라가는 통일 문학 기행	보성
통이통이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7*	DMZ TRAIN 도라산 기행	도라산, 임진각 등
차오름	충남대 국사학과, 경영학부, 무역학과	4	한국전쟁을 통해 살펴보는 분단의 아픔과 평화통일의 지향	춘천, 양구, 고성, 강릉 일대
통일시그널	충남대 정치언론국방학과	4	전쟁의 임시수도 부산에서 찾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자유	부산

* 외국인 학생 5명 포함

III. 성과

- 사업에 지원한 9개 팀 중 6개 팀을 선정하여 실시
-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 훈련
- 사업완료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를 높임

“통일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전까지 통일에 관련된 곳을 견학하고 기행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 했었고 솔직히 과연 통일기행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았습니다. (중략) 기행에서 얻은 지식을 기반 삼아 통일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물론이고, 통일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처음 지원할 때 생각했던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건문생심 우00의 보고서 중

“2017년 3월부터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학술모임을 여러 번 가졌다. (중략)
사실, 여러 번의 학술 모임에서도, 외국인들과 다르지 않은 한국의 역사적 역사적 인식과
단순한 통일을 생각해 왔었다. 나에게 통일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북한에 있는 굶주리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분단 현실이 주는 현실적인 불편함을 체험해 보지 못한 나는,
통일은 언젠가는 되어야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찾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가장 기억에 남은 곳은 도라산역이었다. (중략)
‘남한의 마지막 역이 아닌 북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역’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다.
언젠가는 도라산역에서 북한을 여행하고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를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꾼다.”
- 통이통이 김OO 보고서 중

※통일문화제 : 통일교육주간

I. 개 요

▪ 목적

- 정부가 선포한 통일문화주간에 맞추어 4월부터 학생 기획단을 운영

II. 운영목적 및 기대효과

- 기간 동안 다양한 학내 활동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 학생들이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발성 증진

III. 성과

- 다양한 행사를 통일문화제 “통일 한 걸음”으로 프로그램화
- 통일동아리-학생회-통일교육사업단 간 협업체계 형성
- 학생 중심의 준비와 시행으로 관심도 증대

[표 9] 통일문화제 “통일 한 걸음” 프로그램

프로그램	일 시	내 용	세부내용
대학생 토론대회	2017.5.23.~24. (화~수)	○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주제로 대학생 토 론대회 진행 - 총 상금 100만원(1등 50만원)	사회대 학생회 진행
통일부스운영	2017.5.22.~24. (월~수)	○ 통일교육주간 기간 통일부스운영 -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사업단 홍보	통일동아리 진행
초청특강	2017.5.23.(화) 16:30~18:00	○ 박경 기(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현재 남북관계 분석과, 국민 대통합 방안”	“북한의 이해” 강의지원
기획 통일강좌	2017.5.24.(수) 16:00~18:00	○ 오세섭(영화감독) “1990년대 이후 북한 소재 영화들의 유형과 변화 양상”	
제2차 체험학습	2017.05.26.(금)	○ 철원 일대(전망대 및 제2병굴 등) - 지역 문화해설시	



[사진] 통일문화제 준비기획단 회의



[사진] 통일 문화주간 부스운영



[사진] 토론대회 시상식



[사진] 치험학습-출원 일터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I.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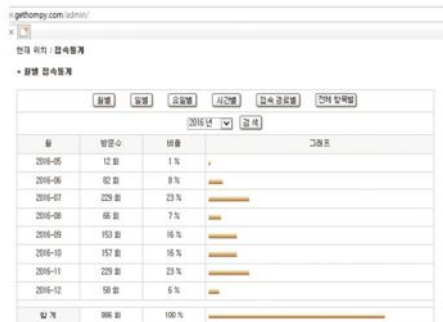
- 목적 : 사업단 및 사업 홍보와 통일관련 정보 제공
- 홈페이지 : <http://uniedu.cnu.ac.kr>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cnuu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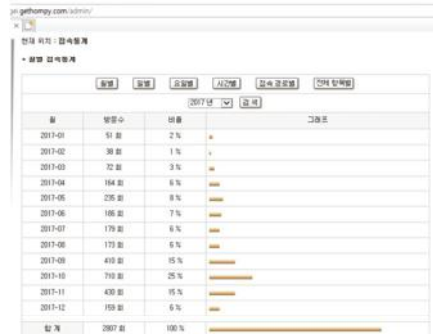
II. 효과

■ 홈페이지

- 개설 이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요 사업일정에 따라 방문자 수 증가



2016년 방문자 통계



2017년 방문자 통계

■ 페이스북

- 축제 기간 동안 주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업단과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함



04. 성과와 평가

가. 주요 성과

- 통일교육의 체계성, 창의성, 효과성 모델 창출
 -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연계 방안 마련
-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통일교육사업단 인지도 확대
 - “2017 충남대학교 학생 통일인식 조사 및 통일교육모델 개발을 위한 설문” 결과

[표10] 통일의 필요성

	빈도	2017년	2016년
통일은 꼭 해야 한다	285	16.5	14.0
통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통일하는 것이 낫다	576	33.4	30.1
통일을 하면 좋겠지만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59	38.2	43.6
통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3	11.8	12.4
합계	1,723	100.0	100.0

[표11] 통일관련 과목을 일반교양으로 개설할 경우 수강 의향

	빈도	2017년	2016년
반드시 수강하겠다	116	6.7	4.3
수강할 의사가 있다	1,051	61.0	57.6
수강하지 않겠다	556	32.3	38.1
합계	1,723	100.0	100.0

[표12] 통일교육사업단 인지 여부

	빈도	2017년	2016년
있다	457	26.5	14.3
없다	1,266	73.5	85.7
합계	1,723	100.0	100.0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2016년 조사보다 보수성향이 더 많은 비율을 나타낸 표본집단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됨
- 2016년과 2017년 조사 모두에서 보수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됨

[표 13] 응답자의 이념성향

	2017년	2016년	이념성향	2017년	2016년
1점	1.3	1.2	보수	12.5	8.5
2점	2.9	1.0			
3점	6.3	6.3			
4점	8.8	7.7	중도	61.4	64.1
5점	37.8	38.9			
6점	14.7	17.5			
7점	18.6	18.8	진보	26.2	27.4
8점	5.3	7.1			
9점	2.3	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지역 내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 대전지역 대학 간 통일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진] 대전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 협약

나. 개선방향

- 비교과과정을 통해 증가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교과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시키는 노력 필요
 - 2017년 조사에서 부/복수 전공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취업과의 연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47.8%로 확인됨
 - 비교과과정과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개별 학교 차원에서 어려움이 존재함
- 다른 통일교육선도대학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경남대학교 학생들과 합동학술회의를 진행한 경험은 충남대 학생들에게 다른 학교 학생들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05. 2018~2019년 사업계획

가. 주요 목표

- **비교과과정과 교과과정의 연계성 확대**
 - 비교과과정과 교과과정의 연계를 통해 통일교육의 체계성 강화
 - 학생들의 자발적 비교과과정에의 참여가 교과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사업 추진
- **통일교육모델의 확산**
 - 2016~2017년 사업의 성과를 학내 및 다른 대학으로 확산

[표 14] 연구개발

구분	단위사업	주요내용
연구 개발 (수정· 보완 연구)	통일인재양성 프로그램 연구·개발	○통일교육의 체계성, 창의성, 효과성 확대 프로그램 개발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각 위원회 및 자문회의 -“CNU 통일인식 및 통일교육 수요조사”
	석·박사 학위논문 지원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총 5편 이내
	통일 및 통일교육관련 자료 DB구축	○통일교육사업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구축 -통일 및 통일교육 관련 자료 중심으로 홈페이지 개편 -통일교육사업단 수탁 자료 DB 구축

[표 15] 모델보급 컨설팅

구분	단위사업	주요 내용
모델 보급· 컨설팅	지역 대학간 협업형 통일교육 모델 개발	o대전·충청 대학간 통일교육 협업체계 구축 -지역 대학간 협업형 통일교육 모델 개발로 체계성 강화 o통일교육 모델 확산 방안 모색 전문가 학술회의 -통일교육 모델 확산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회의 개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통일전문교육트랙 지원	o대전, 충청권 대학을 대상으로 통일전문교육트랙 확산 -2018년도 시범사업으로 대전·충청권 2개 대학에 프로그램과 재정지원
	RC와 함께하는 통일교육	o충남대 RC프로그램과 공동운영 -통일교육모델의 학내 보급 -통일전문교육트랙을 RC 특성에 맞추어 자체 프로그램 진행

[표 16] 강좌운영

구분	단위사업		주요 내용
강좌 (모델) 운영	교과	교과지원	o정규교과목 강좌지원 o연계전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비교과	통일교육 해외연수	o“분단현실 체험과 통일준비를 위한 해외연수” - 북한·중국 접경지역 o“통일 후 시회동함을 생각하는 해외연수” - 베트남
		스스로 기획하는 통일교육	o각급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프로그램 지원 o통일동아리 지원
		통일축제	o통일교육주간 “통일 한 걸음” o충남대 다동제 기간 통일교육사업단 홍보 o“통일과 인문학의 만남”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과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여 동원인식 확대 기회를 제공 -통일관련 영화 감상평 공모전, 통일 UCC 공모전
		통일기행 학술회의	o“길에서 만나는 통일” o통일 환경 및 북한 관련 전문가 학술회의

나. 사업 진행 현황

1) 통일전문교육트랙

- 교내
 - 충남대 RC 정규프로그램으로 진행(2018년 3월부터)
- 교외
 - 2018년 1학기 : 한남대
 - 2018년 2학기 : 대전대, 공주교육대

2) 통일영화감상평 공모전

- 4월부터 공모시작, 5월에 공모 마감
- 충청권 8개 대학, 78명 응모
- 충남대총장상 1명, 통일교육원장상 1명 등 7명 수상

3) 길에서 만나는 통일

- 5월까지 공모
- 7개 팀 지원, 3개 팀 선정
- 2차 모집 중(6월 중순 추가선정)

4) 통일교육주간 “통일 한 걸음”

- 5월 21일~25일
- 통일홍보단 및 기획단 중심

프로그램 명	일 시	내 용
온라인 이벤트	2018.5.21. (월)	○ 통일교육주간 홍보를 위해 사업단 SNS를 활용한 온라인이벤트 진행 - 참여 상품: 평양냉면 봉지라면
초청특강	2018.5.21.(월) 16:00~17:30	○ 북한이탈주민 초청특강 “나의 한반도 생활” - 채윤희 강사
통일부스운영	2018.5.23.~24. (수~목)	○ 통일교육주간 기간 통일부스운영 -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사업단 홍보
통일영화감상문 시상식	2018.5.24.(목) 15:30	○ 통일영화감상문 시상식 진행

중남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홈페이지 접속통계(2018년 6월 현재)



Session 2 [사례발표]

[선도대학] “아주대 사례 발표”

김용순 교수

(아주대)

「실사구시 · 통합」 모델

대학통일교육 사례 - 통일교육 선도대학



아주대학교

Contents

- 1 통일 교육 기본 구상
- 2 통일 교육 모 델
- 3 2016 - 17 년 성 과
- 4 비 전 & 기 대 효 과

통일교육 기본구상

이공계 중심의 실사구시 통일교육

공과대학, 의학대학 등 이공계열 재학생 70%

통일준비를 위한 사회통합 통일교육

경기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 약 8천 7백여명

통일교육 모델

「실사구시·통합형」 통일인재 양성

통일교육의 효과 극대화

통일트랙

통일마라톤

통일트랙



통일트랙 본격 시행(2017년 9월)

- ✓ 특정 전공이 아닌 모든 전공을 수용할 수 있는 다산학부대학(교양대학)에 설치
- ✓ 과목 운영이 바로 가능한 사회계열부터 시작, 공과대학 및 의학·간호계열 확대 추진

실사구시 영역 교과목

- ✓ 교양교과목: 북한정보의 분석, 북한과학기술사
- ✓ 전공교과목: 북한 정치커뮤니케이션, 북한 정치·사회개론, 남북경제협력과 통일, 통일 후 북한에서 창업

* 교과목 개발 및 추가 개설 추진

사회통합 영역 교과목

- ✓ 교양교과목: 북한사회의 이해, 통일한국의 이해
- ✓ 전공교과목: Unification of Korea and Beyond

* 교과목 개발 및 추가 개설 추진

통일마라톤

정의

- ✓ 통일관련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민
- ✓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일 준비

목표

- ✓ 주입식 이론중심에서 탈피한 실질적인 소통중심의 비교과교육
- ✓ 행사 준비 및 기획 과정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역량 제고

방법

- ✓ 단계별 다양한 통일관련 비교과활동 지속적 개최
(온/오프라인 컨퍼런스, 강연, 세미나, 토크콘서트, 전문가담론, 북한 이탈주민과의 교류,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실사구시 영역 주요 프로그램






- ✓ 강연/포럼-「아주멋진 통일과 나눔 강연」, 「아주 신비한 통일TALK」, 「통일, 문화를 말하다」, 「그리다 토크쇼」, 「아주(한반도)정세포럼」, 「말랑말랑 과학토크쇼」, 「아유세미나」⁽¹⁶⁻¹⁸⁾
- ✓ 국제학술회의⁽¹⁶⁻¹⁸⁾ 및 전문가담론 시리즈⁽¹⁷⁾
- ✓ 통일 인포그래픽 강좌 운영⁽¹⁶⁾
- ✓ 동아리 「새봄」 독서토론 지원⁽¹⁶⁾
- ✓ 에세이 공모⁽¹⁶⁾ 및 통일콘텐츠 공모⁽¹⁷⁾
- ✓ 북한 과학기술 활용 창업 아카데미⁽¹⁸⁾

사회통합 영역 주요 프로그램

- ✓ 북한이탈청소년 여름캠프 「아주멋진 통일캠프」⁽¹⁶⁻¹⁸⁾
- ✓ 디아스포라 코리아 통합 「아주멋진 통일캠프」⁽¹⁸⁾
- ✓ 사회통합캠프 「나의 이웃사람친구」⁽¹⁷⁾
- ✓ 동아리 「스무날비」 동영상(외국인이 보는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 문제) 제작지원⁽¹⁷⁾
- ✓ 해외현장연구 「미래세대 통일탐사 어드벤처」^(17, 18)
- ✓ 북한 장마당 체험 「외글바글 장마당」⁽¹⁷⁾
- ✓ 북한이탈주민에게 편지보내기 「마음잇기」⁽¹⁸⁾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

[illegible]

<p>□ 2016년</p>	<p>□ 2017년</p>
<p>○ 1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6년 7월 30일(수) 9:00 - 27:40 - 장소 : 평안강,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10-학년 조리학계 및 컴퓨터계 포함 29명 	<p>○ 1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4월 6일(수) 9:00 - 18:00 - 장소 : 잠양역,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14학년 및 연세고 등 67명
<p>○ 2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6년 10월 15일(수) 9:00 - 18:00 - 장소 : 평안강,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스콜 40명 	<p>○ 2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5월 26일(수) 9:00 - 18:00 - 장소 : 잠양 제방길, 철마천역, 송탄역, 노성산사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연세고 등 39명
<p>○ 3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6년 11월 12일(수) 9:00 - 18:00 - 장소 : 송파천 및 송탄 OP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연세고 등 73명 	<p>○ 3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11월 10일(수) 9:00 - 18:00 - 장소 : 잠양역,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국제대학원 학생 및 교직원 등 10명
<p>○ 4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11월 13일(목) 9:00 - 18:00 - 장소 : 잠양역,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연세고 등 39명 	<p>○ 4차 현장학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11월 13일(목) 9:00 - 18:00 - 장소 : 잠양역, 도라산역, 제방길 등 - 대상 : 아주대학교 대학생 및 연세고 등 39명
 	  

4. 행사개요
 - 행사: 2019년 9월 29일~11월 30일
 - 운영: 학사, 교수팀 2개 반으로 운영
 - 내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인포그래픽 자료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대회
 - 목표: 인포그래픽을 통해

구분	일차	일차 주제 및 내용
1	09.26	인포그래픽 개요와 현재 인포그래픽 트렌드 분석
2	10.04 / 10.05	인포그래픽 이해 / 사례를 통한 구성요소 파악
3	10.06 / 10.12	통계 데이터 활용 / 사례를 통한 구성요소 파악
4	10.11 / 10.19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5	10.13 / 11.02	자료의 논리와 시각 표현
6	11.01 / 11.09	자료의 논리와 시각 표현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7	11.03 / 11.16	자료의 논리와 시각 표현을 위한 데이터 시각화
8	11.08 / 11.23	인포그래픽 스토리텔링
특강	11.30	자료 스토리텔링
9	11.15 / 11.30	인포그래픽 발표대회
10	11.17 / 12.07	발표 및 피드백, 수상증 수여 및 우수자 시상



0. 통일 인포그래픽 제작을 전서



▲ 이산가족 이야기



▲ 통일 계획할까 한반도 통일일까요

아주대학교



▲ 통일국가 시제도 본 유사-80



▲ 북한의 대외



▲ 북한의 대중교통



▲ 남북한의 숲 이야기



▲ 통일의 필요성

아주대학교


2017년 1학기

□ 2017년 1학기
: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 행사내용
- 행사 2017년 1학기 2017년 1학기 1300-
- 행사: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 주제: 평화의 통일교육, 평화의 통일

나 2017년
: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 행사내용
- 주제: 평화의 통일교육, 평화의 통일
- 행사: 2017년 1학기 2017년 1학기 1300-
- 행사: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 주제: 평화의 통일교육, 평화의 통일




대학의 통일교육 활성과 방안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통일교육 선도대학 연합 학살학 대학

[illegible]

[illegible]

이웃(AIUV) 애플리케이션

Q 2015년

- 최초 이웃(AIUV) 애플리케이션;


Q 행사개요

- 일차 2015년 8월 17일(화) - 19(금), 2박 3일
- 장소: 아주대학교
- 대상: 아주시민(학생) 및 직원출신 재직생 34명
- 아수대학(현)생 20명
- 대학사학생 10명
- 스태프 포함

Q 주제: 지역사회 창업 프로젝트

Q 주요일정


	1일차	2일차	3일차
am	7시~8시 8시~9시 9시~10시 10시~11시	가상 포식 활동지키르기	가상 포식 확립단계 창업 프로젝트 발표
pm	12시~1시 1시~2시 2시~3시 3시~4시 4시~5시 5시~6시 6시~7시 7시~8시 8시~9시 9시~10시 10시~11시 11시~12시	점심 중식 점심 ice breaking 남북 놀이 한마당 체육 포럼 코칭 커피 시간 회합(국악학사)	점심 중식 점심 소계 & 휴양 : 비록비 마을 동원지역 부평동 목장 종교로 갈매초 오류 코칭 회합(국악학사)




Q 참가자: "지역사회 창업 프로젝트" 1등 프로젝트

- 행정 관할 종합 야영지에어는 by: 불모우 카라우


1 사업 제안서




3 운영 계획



4 지역 사회




아주대학교

[illegible]

○ 퇴소식 이후에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주대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 실시



U 2017년
: 제2회 '여주(AJU) 멋진 통일캠프'

- 행사개요
 - 일시: 2017년 8월 16일(수) - 19(토), 3박 4
 - 장소: 골도해마리론도(경기도 용인시 소재)
 - 대상: 관심있는 전국 소재 대학(원)생
 - 남한출신 대학(원)생 35명
 - 남북대학생 10명
 - 스태프 10명



0 부속: 남북 도시개발 프로젝트

● 주요내용

번호	1월 4주(28일)	2월 1주(28일)	3월 1주(28일)	4월 1주(28일)
1월 7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8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9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0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1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2월-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2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3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4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5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6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7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8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9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0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1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12월 1주-4주	가정	가정	가정	가정

특강 1: 북한개발연구학회(김영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특강 2: 2. 우리와 만나는 미래 - 한류와 우리의 역할하기(박영석 NABIC 사업총괄실장)
특강 3: 한류스타의 꿈과 현실(정지현 NABIC 사업총괄실장)
특강 4: 통일한국에서의 삶(김영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특강 5: 통일한국에서의 삶(김영호 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프로젝트 결과물

번호	교류명	지역		프로젝트명	비고
		남	북		
1	거점도시	부산	대전	한민도음 이끄는 우익단체 양성 대학교	
2	도매마케팅	김제	광주광역시	나예복 박 있는 출판계 및 출판법	
3	비교도시	충천	신안군	문화재단 도시구상	2등
4	물고기	홍천	평택	신원재 DMZ시대 개발	
5	생각프로젝트	서울	영광군	독립기념관	
6	문화도시	고성	북한	연경미술	1등
7	책이론	성남	인천	정신 건강요리	3등

○ 결과물: '남북지역 개발 프로젝트' 1등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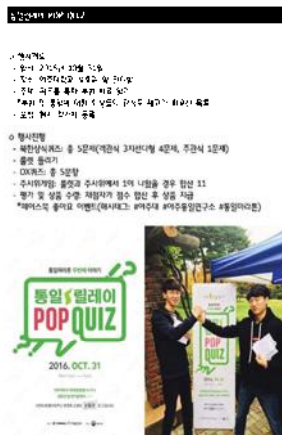
· 연어를 통조린 낙원군 by 통원우
: 남한의 고성군과 북한의 낙원군이 함께하는 연어사업

100







연도별 활동조사		복합 조사				복합 조사				합계
조사항목		1	2	3	4	5	6	7		
활동 내용 분류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8	100	28	100	4	100	9	100	42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3	100	42	100	26	100	3	100	102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18	100	28	100	4	100	9	100	4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3	100	42	100	26	100	3	100	10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조사 항목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18	100	28	100	4	100	9	100	4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3	100	42	100	26	100	3	100	10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조사 항목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8	100	28	100	4	100	9	100	42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3	100	42	100	26	100	3	100	102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활동가 지원 및 사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조사 항목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18	100	28	100	4	100	9	100	4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3	100	42	100	26	100	3	100	102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주요 활동 내용 및 실적 조사	27	100	3	100	4	100	26	100	60



동영상 제작 개요



① 북한 통일관련 주제별 6편의 동영상 제작



- 인권문제, 통일교육의 주제로 북한 실상을 바로알기 위한 교육용 동영상(최소 5~10분 이내)을 제작



- 국내 강연에 활용
- 정부 합동대학과의 강의 공정에 활용
- 세미나, 포럼, 학술회의 등 '아주통일교육' 도입 제언확산에 활용



② 본단의 역사, 이주재학교 통일마련 교육영상으로 시작하여, 보다 쉽고 빠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량제작하여 영상으로 한창








③ 남북대학 및 교문의 역사 남북교류 주제를 다량제작하여 영상으로 시작하여, 연도별 주제별 영상을 소주제로 하여 사례별 세부 영상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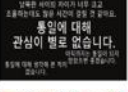

④ 동양의 필요성 1: 동양의 필요성과 한반도,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일반 상식 수준의 영상으로 시작하여 영내에 선수의 사례로 동양의 필요성에 접근












⑤ 동양의 필요성 2: 학생들이 동양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본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영상을 통해 동양의 필요성을 강조








⑥ 지도에 친 한반도 한반도 본단의 역사를 영상으로 되찾아 보고, 동양의 정황과 향후 예상되는 통일관계에 대해 고찰












⑦ 내 이름은 대학생이다. 학생들이 연도별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고, 동양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학생들에게 대한 질문 및 목적 사례로 통째로 영상









키드뉴스 제작

Q 2016년 북한 통일관련 키드뉴스 제작 및 SNS를 통한 상시적 공개



Q 2017년 북한 통일관련 키드뉴스 제작 및 SNS를 통한 상시적 공개




아주대학교

2016-17년 성과

2016

「실사구시·통합」 모델 기반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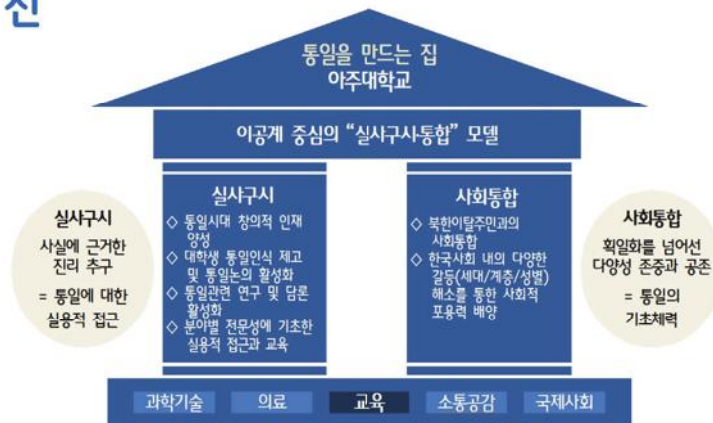
- ✓ '통일트랙' 본격화 준비
 - 교양교과목 개편 및 신설
- ✓ '통일마라톤' 홍보 및 관심 제고
 - 비교과활동을 통한 학생주도적 참여형 통일교육 실시
 -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제고

2017

「실사구시·통합」 모델 메뉴얼화

- ✓ '통일트랙' 본격화
 - 교양 및 전공교과목
 - '통일트랙' (2017.9) 설치
- ✓ '통일마라톤' 활성화
- ✓ '통일트랙'과 '통일마라톤' 통합
 - 실사구시 + 사회통합

비전



기대효과





감사합니다

Session 3 [사례발표]

[옴니버스 특강] “창원대 사례 발표”

이기완 교수

(창원대)

[옴니버스 특강]

창원대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기 완 (창원대)

I. 서론

-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있어 대학의 책무는 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시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임.
- 최근 통일 관련 여론 조사에 따르면, 통일시대의 주역인 대학생들 사이에서 통일과정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부담과 취업난, 그리고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일에 대한 회의감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는 상황임. 분단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무관심해지고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수 있음.
- 통일 무관심 세대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올바른 논리와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즉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상화하여 통일미래세대인 대학생들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 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 적극 동참시킬 필요가 절실히 요청됨.
- 이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인 창원대학교의 경우에는 학과 단위의 분절적인 교육 과정과 예산상의 이유로 새로운 교과목을 신설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 이 때문에 분절적인 교육과정과 학과 이기주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넓혀 나가는데 옴니버스 특강이 안성맞춤이라고 판단하여 동 사업에 적극 참여함.

Ⅱ. 기존 통일교육 현황

- 현재 우리의 고등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일 관련 문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거의 출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구체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교육과정 속에 통일 관련 내용이 기껏해야 2~3페이지에 불과하며, 최근 10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일 관련 문제가 한국 근현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음.¹⁾

<표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통일 관련 문제: 2008학년도~2017학년도

연도	사회탐구영역 교과목명	문항번호	문항 내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되지 않았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되지 않았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되지 않았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활과 윤리	13번	오씨-베씨의 딜레마
	한국사	20번	남북한 통일방안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20번	남북정상회담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14번	통일비용, 통일편익
	한국 근현대사	20번	남북정상회담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15번	남북정상회담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14번	통일의 경제적 효과
	한국 근현대사	20번	7.4남북공동선명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 근현대사	20번	남북한 통일방안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7번	10·4 남북정상선언
	한국 근현대사	20번	남북기본합의서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사회탐구영역 수능 기출 문제를 분석하여 작성.

1) 이기완, “분열된 통일동학의 내적 요인,”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5집 2호(2017), p. 90.

- 특히 경남지역은 대학과 지자체의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 저조로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통일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현재 우리대학은 아직까지 북한학과 내지 통일학과가 없고, 학교 전체 개설 강좌 중에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2과목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강좌 개설에 따른 강사료 부담 문제가 있어 신규 강좌의 개설은 학사지원과에서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는 실정임.
- 이 때문에 우리 대학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 강좌를 현재 개설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국제관계학과 주관으로 두 강좌 [통일문제의 이해(교양, 2학기), 남북한 관계론(전공, 2학기)]만이 개설되고 있지만 수강생도 70명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표 2> 창원대학교의 통일관련 교과목 현황

개설 교과목	통일문제의 이해	남북한관계론
구분	교양	전공
개설학과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과
시수	3학점(3시간)	3학점(3시간)
개설학기	2학기	2학기
수강생	70명	30명

- 이러한 대학의 현실 및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국제관계학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전국대학생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부터 ‘통일포럼’ 사업에 선정되어 “전문가와 대학생이 함께하는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켜 왔음. 이러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2014년에는 전국대학생통일문제연구소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음.

<표 3>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주관 학술회의 개최 실적

- 2009: 북한의 핵정치와 인간안보
- 2011: 기로에 선 북한정세와 남북한 관계
- 2013: 한반도 안보질서와 대북정책: 비전과 전망
- 2013: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해소와 한반도 신뢰구축
- 2013: 주요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안보
- 2014: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 그리고 해법모색
- 2014: 통일에 대한 해법, 대학생들에게 듣는다.
- 2015: 통일을 둘러싼 갈등해결방안 대토론회
- 2015: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그리고 우리의 과제
- 2016: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동북아 국제질서
- 2016: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그리고 경남의 과제
- 2016: 대북제재와 한반도 통일

○ 그러나 이러한 학술 세미나에는 국제관계학과 학생만이 참여하고 있어 그 범위와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임. 이 때문에 전학생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양강좌로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강좌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이것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옴니버스 특강을 통해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음.



Ⅲ. 옴니버스 특강 진행 상황 및 실적

○ 우리 대학은 2016년 통일부의 『통일·북한 강좌』와 『옴니버스 특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음. 2016년 2학기에는 『통일·북한 강좌』 사업에 선정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켰음. 하지만 강좌 운영과 관련하여 약간의 내부 갈등이 발생하여 2017년 1학기부터는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대신 『옴니버스 특강』 사업만 신청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옴니버스 특강의 경우 특강 회수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가급적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대학 교양 강좌 중 대단위 강좌(150명 이상)로 열리고 있는 『미래사회의 이해』, 『재미있게 이해하는 글로벌 핫 이슈』, 『정치학의 이해』, 『국제관계의 이해』,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교과목에 담당 교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강을 실시하였음. 특히 담당교수에게 특강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특강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음.
- 대단위 교양강좌 시간에 특강을 실시했던 결과, 2017학년도 1학기 때에는 550명, 그리고 2018학년도 1학기에는 787명이 옴니버스 특강을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가졌고, 특히 학문 특성상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자연대, 공대, 예술대 학생들에게도 특강 기회가 제공되었음.



<표 4> 2017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진행 상황 및 실적

회차	강의일자	강사 및 강의주제	참여인원 및 학과	강의사진
1회차	2017 3.29(월)	류길재 (전 통일부장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의 길	총 123명 인문대: 28명 사회대: 35명 경영대: 32명 공과대: 6명 메카대: 6명 예술대: 4명 자연대: 11명 문화테크노: 1명	
2회차	2017 4.6(목)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준비	총 141명 인문대: 19명 사회대: 32명 경영대: 53명 공과대: 2명 예술대: 1명 자연대: 31명 문화테크노: 3명	

3회차	2017 5.1(월)	김태일 (전국대학통일문제 연구소협의회 회장)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몇 가지 전망	총 152명 인문대: 43명 사회대: 35명 경영대: 51명 공과대: 7명 메카대: 3명 예술대: 3명 자연대: 9명 문화테크노: 1명	
4회차	2017 6.13(화)	유호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북핵 해결과 한반도 통일의 길	총 134명	

<표 5> 2018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진행 상황 및 실적

회차	강의일자	강사 및 강의주제	참여인원 및 학과	강의사진
1회차	2018 3.20(화)	황기식 (동아대학교 교수) 유럽통합과 한반도 통일	총 169명 인문대: 47명 사회대: 50명 경영대: 47명 공과대: 1명 예술대: 2명 자연대: 22명	
2회차	2018. 3.29(목)	유호근 (청주대학교 교수) 스포츠와 남북관계	총 103명 인문대: 17명 사회대: 24명 경영대: 31명 공과대: 1명 메카대: 3명 예술대: 15명 자연대: 8명 문화테크노: 4명	

3회차	2018 4.2(월)	여현철 (국민대학교 교수)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사회통합	총 160명 인문대: 40명 사회대: 55명 경영대: 33명 공과대: 5명 예술대: 6명 자연대: 21명	
4회차	2018 4.10(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문제를 둘러싼 4강 관계	총 140명 인문대: 42명 사회대: 22명 경영대: 49명 공과대: 1명 메카대: 2명 예술대: 13명 자연대: 7명 문화테크노: 4명	
5회차	2018 4.16(월)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총 110명 인문대: 21명 사회대: 47명 경영대: 12명 공과대: 3명 메카대: 1명 예술대: 3명 자연대: 23명	
6회차	2018 5.28(월)	조철호 (광운대학교 교수) 남북화해협력과 통일미래비전	총 105명 인문대: 45명 사회대: 38명 경영대: 12명 메카대: 1명 자연대: 2명 문화테크노: 5명 외국인유학생: 2명	

- 2018학년도 1학기에는 2017학년도 1학기 때와는 달리 특강 강사 섭외 시,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우선 선정하고 그에 맞춰 특강 강사를 섭외하였음. 그 결과 2018학년도 1학기에는 2017학년도 1학기에 비해 특강 기회가 4회에서 6회로 늘어났으며, 학생들의 수업 참여 및 특강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음.
- 더욱이 교과목 담당 교수와 사전 협의를 통해 특강 내용 중에서 5% 정도를 시험에 반영한다고 공지함으로써 ‘인위적이었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특강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었음.

IV. 옴니버스 현장학습 추진상황 및 실적

- 경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와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체 학생 중에서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또한 지리적 거리로 인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지도 못한 채 졸업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학생들에게 분단 현장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분단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와 함께 통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이 때문에 우리대학 학생들에게 판문점 현장 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저변 확대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
- 우리대학은 이기완 교수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경남통일교육센터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내 고등학생·대학생·교사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판문점 및 철원지역으로 총 10회에 걸쳐 현장 학습을 실시하였음. 하지만 경남통일교육센터의 통일현장학습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학생에게 분단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통일 문제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단 현장과 전적지 등에 대한 현장 학습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 통일’의 주역이라는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 따라서 대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옴니버스 특강과 함께 현장 학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표 6> 2018년 1학기 옴니버스터강 현장 체험 현황

학교명	창원대학교
책임교수	이기완
일 시	2018년 4월 28일~4월 29일(1박2일간)
장 소	판문점 인근 (세부일정 별첨 참조)
참가인원	42명(책임교수 1명, 인솔간사: 2명, 학생: 39명)

<표 7> 2018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현장 체험 프로그램

일자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4.28 (토)	05:50~06:00	창원대 집결	본관 옆 버스주차장
	06:00	출발	학생확인 출발
	06:00~11:30	이동 (창원대 → 임진각 매표소)	
	11:30~12:30	중 식	
	12:30~16:30	DMZ투어	
	16:30~17:30	이동 (임진각 매표소 → 숙소)	
	17:30~18:30	석 식	서울국제유스호스텔
	18:30~20:00	통일관련 종합 토론	서울국제유스호스텔
	20:00~	휴 식	
4.29 (일)	07:30~08:30	기상 및 조식	서울국제유스호스텔
	08:30~09:00	준비 및 출발	전쟁기념관
	09:00~09:30	이동 (숙소 → 전쟁기념관)	
	09:30~12:00	전쟁기념관 관람	
	12:00~13:00	점심식사	
	13:00~18:00	이동 (식사장소 → 창원대)	

-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바로 직후인 4월 28일~29일 옴니버스 통일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던 관계로 참여 학생들의 커다란 관심과 호응 속에서 이루어졌음. 특히 경남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판문점 주변에 생소하였던 학생들은 판문점 주변을 돌아보면서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
- 판문점 주변 견학을 마치고 분단의 현실과 통일이라는 주제로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북한 분단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재차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음.

<그림 1> 2018 옴니버스 특강 현장 체험 활동



<그림 2> 체험 수기

통일안보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와서

국제관계학과

20160617

최지원

작년에도 통일안보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었지만,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지라 이번 체험학습 신청도 망설이지 않고 했다. 사실 저번 현장학습 때에도 판문점견학에서 DMZ투어로 변경되어 이번에는 꼭 판문점을 가보고 싶었지만,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행사 때문에 이번 현장학습도 DMZ투어로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아쉬웠다. 하지만 도라 전망대에 꼭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었다.

그렇게 새벽에 버스를 탑승하고 5시간을 달려 임진각 매표소에 도착했을 때, 작년에도 해 보았던 신분증 검사였지만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다. 이후 중식을 먹고 본격적인 DMZ투어를 하였는데, 먼저 도라 전망대에 가 설명을 듣고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보았다. 다행히 날씨가 많이 흐리지 않아서 북한의 전경들을 볼 수 있었다. 처음 북한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남한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놀랐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때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던 설명들을 한 번 더 들으니 새삼 나라를 지키는 자신을 희생한 용사들의 고마움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제 3땅굴 체험이다. 처음 (▲ 도라전망대에서 찍은 사진) 땅굴체험을 할 때에는 무작정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영상과 북한과 남한의 주요 사건들을 주의 깊게 보고 난 후 땅굴을 체험해 보니 안보의 중요성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두 번째 날 도착한 전쟁기념관 관람이었다. 타국에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외국인 참전 용사들의 이름들이 쓰여 있는 기념비를 보고 있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기념비 앞에 후손으로 보이는 외국인이 꽃을 두며 묵념을 하고 있기에 우리도 옆에서 조용히 묵념을 하기도 하였는데, 물론 지금도 분단국가이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은 늘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을 만들어 준 용사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만약 이 체험을 너무 멀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등등의 이유로 망설이고 있다면 꼭 한번만 다녀와 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체험 내용도 정말 알차고, 체험 후 주어지는 서울 자유여행 또한 정말 재미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한번 다녀온 친구들이 또 가는 경우도 매우 많았다. 나 또한 2학기나 내년에 또 현장학습이 진행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신청할 것이다 !



지난 4월 28일, 29일에 걸쳐 이루어진 DMZ 투어는 원래 계획되었던 판문점 견학이 제외된 채로 진행되었다. 지난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27일 전후로는 민간인의 판문점 출입이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휴전선)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회담장소, 남북 간 접촉과 회담을 위한 장소, 남북을 왕래하는 통과지점 등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지난 남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T1, T2 사이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판문점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위치한다는 말은 사실상 판문점 건물이 남북으로 나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판문점 건물 중 하나인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소 내에 놓여 있는 회의용 탁자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마이크 선이 남북의 경계를 나타낸다. 판문점에 대한 설명 중 남북 분단 현실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던 대목이다.

DMZ는 Demilitarized Zone의 약자로, 비무장지대를 뜻한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이다. 1953년 8월,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 주민 거주지 '대성동 마을'과 북한 주민 거주지 '기정동 마을'이 생겼다. 대성동 마을은 '자유'의 마을이라 불리는데 자유를 염원하는 마을에서 지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을에는 엄격한 출입 검열과 통행 제한이 있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만큼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위와 같은 배경지식과 설명을 바탕으로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땅은 위화감을 주지는 않았다. 국제 사회에서 고립되어 핵을 만드는 데 치중하던 북한의 이미지와 지난 남북회담에서의 인간적 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겹치면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다. 즉, 정치적·이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망원경으로 보는 북녘 땅은 그 차이가 무뎌진다면 언제든 향할 수 있는 곳으로 비춰졌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땅굴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차갑고 습한 지하를 통해서라도 기습작전을 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자 했던 인민군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1990년 3월 발견된 제4땅굴을 끝으로 더 이상의 땅굴은 발견되고 있지 않지만 알려지지 않은 땅굴은 대략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땅굴 벽면에는 석탄 칠이 되어 있었는데 이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땅굴을 석탄 채굴광으로 속이기 위해 칠한 것이라고 한다. 돌로 된 굴을 파면서까지 남침을 하고자 했던 이유가 결국은 권력에의 욕심 또는 이념적 통일에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니 아연해졌다. 한때의 동지를 한순간 적으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이념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겨졌을까. 인류를 구원할 사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었을까. 그런데 그 사상의 추구에 의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랐는가. 그렇다면 결국 그 사상은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런 역사와 모순이 존재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지난 역사의 전쟁은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의 삶은 한 순간의 기록으로 남을 뿐이라는 생각에 미치도록 안타까웠다.

통일이 되면 그러한 안타까움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까. 전쟁으로 인해 '삶'의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평화를 약속하면서 당신들의 후손에게는 그러한

- 첫째 날 일정 중 숙소에 귀가한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진 점은 좋았지만, 현장체험학습과 함께 통일 특강이 준비되었으면 그 교육적 효과가 훨씬 더 배가되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다음 날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귀향에 따르는 물리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렵게 서울지역에 온 이상 귀가 시간을 조금 늦어서라도 다른 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V. 결론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8학년도 1학기 창원대학교 옴니버스 특강 사업은 은 통일 특강 6회, 판문점 현장 체험 1회를 실시하였고, 참여 학생들의 커다란 호응과 관심 속에서 잘 마무리되었음. 특히 대단위 교양강좌와 연계하여 옴니버스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비록 일회성의 특강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었음.
- 다만 그 참여 학생이 매회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들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 현장에서 통일 관련 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평화 통일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관건임.
- 향후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일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정규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와 교육부의 긴밀한 연계 네트워크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통일 문제를 다룸에 있어 특강 강사와 학생 간 ‘관심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

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강의 방식도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 방식이 아닌 쌍방향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됨.

- 판문점 주변 현장 체험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스스로 분단 현장을 체험하고 남북한 평화정착과 통일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교육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동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장 체험을 다녀 온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Session 3 [사례발표]

[통일·북한 강좌] “진주교대 사례 발표”

이경원 교수

(진주교대)

진주교육대학교 [통일·북한강좌] 운영 사례

2018.6.11.

이경원(진주교육대학교 교수)

1.운영 현황

■ 2학기 [학교통일교육론], 1학기 [다문화와 통일교육] 신규강좌 개설/신규심화로 2016년 2학기부터 운영

2.강좌 운영의 특징

1) 전문가 초청 팀티칭(Team Teaching)

- 전담교수의 강좌 관리운영 하에 다양한 강의 주제별로 보다 전문성 있는 북한 및 통일문제, 다문화교육 전문가가 강의
- 전담교수, 총장 및 진주교대 내부 교수-이경원교수, 최문성총장, 조기제교수, 정호범교수
- 외부 관련 분야 저명인사 초청-손호철(서강대교수), 임혁백(고려대교수), 심지연(경남대교수), 추병완(추천교대교수), 최보선(전통일부기초실장), 김재한(한림대교수), 신정화(동서대교수), 박성윤(수출입은행부장), 박수인교수, 이인정(통일교육원교수), 양승태(이대교수), 이광형(서울대재외국민연수원자문위원)
- 탈북강사-이현주, 김준영 : 탈북강사 평가 우수





2)초청특강 공개강의 실시

-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경우 직원 연수 인정제를 활용하고, 전교생 청강을 허용하여 교직원 및 전교생 약 200여명 성황
- 학기당 약 5-6회 정도 실시
- 강의 없는 수요일 7.8교시 특강시간 유일하게 배정-전교생 대상 청강 용이



3) 학습자 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 수강생을 5~6명의 프로젝트 학습조로 조직하여 조별 1학기 동안 수행할 탐구주제를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하여 학기말에 프로젝트 학습의 결과물을 발표, 평가하여 팀티칭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학생 참여시킴
- 주별로 다른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어 일관성이나 체계성이 약화된다는 지적을 받지만, 개별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 앞으로 주마다 프로젝트 학습결과물을 발표하고 강의자와 함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교수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학생 배움중심의 고차적기능을 향상 도모



4)조별 학습 극대화 위해 과정 평가 협동학습 가미

- 학기 첫 주 조별 프로젝트 학습 주제 선정 시 협동학습으로 무임승차자 봉쇄
- 선과제로 개인 주제선정/조별 주제 선정 과정 운영
- 탐구결과 발표 시 무임승차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작위 답변

5)탈북강사 강연 - 북한 실상 이해제고 노력

- 탈북교사나 탈북주민 중 북한학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수한 인재를 초빙하여 북한의 교육과 사회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질문 등 참여를 활발하게 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

6)현장 견학으로 실감 더해

- 거제 포로수용소 견학(2017년 2학기 여분의 예산 /2018년 1학기 정규예산)
- 이순신공원
- 통영 동피랑 등 문화체험
- 6월 6일 45명 견학 다녀옴.
- 현실감 넘쳐 확대 필요-지역 통일학습체험장 적극활용
- 토요일이나 공휴일 운영의 어려움



7)신규강좌를 지속적으로 심화 및 최근 부각되는 쟁점 중심으로 강의개발

- 2016년 2학기 신규 [학교통일교육론] 개설--->2017년 2학기 심화강좌 -->2018년 2학기 거의 새로운 강좌로 공모 개설예정

8)총장의 적극적 지원

- 최문성총장 통일교육 및 다문화교육 다년간 연구 강의 전문가
- [다문화사회윤리] 강좌를 명칭 변경하여 개설 [학교통일교육론], [다문화와 통일교육]
- 전국적 저명인사 네트워크 섭외
- 예산 집행의 어려움 없음



3. 통일·북한 강좌 지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1)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북한 강좌로의 발전 모색해야

-통일교육 교수학습 방법론 강좌개발 지원필요 : 통일·북한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강좌를 넘어서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좀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인 훈련을 위한 강좌개발 지원되면 더 좋겠음

-학내 여러 분야 전공 교수들의 인력 풀을 이용하여 학내 통일·북한교육 역량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음악, 미술, 체육, 과학, 문학, 등 초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교육 선도대학 모형을 개발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다.

2) 통일.북한 강좌 전담교수에 대한 격려 및 전문성 제고차원의 현장 견학 필요

- 전담교수 대상 통일.북한 관련 견학프로그램 운영
- 주요한 통일.북한 관련 학술대회 개최 초청 필요

3) 초기 신규강의 개설의 어려움

시간적으로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려면 학내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공모절차가 늦은 감이 있음.

4) 신규강의 개설 뿐만 아니라 개설된 강의를 좀더 심화하고, 최근 경향을 반영한 강의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사업 확장성 커짐.

5. 통일.북한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통일.북한교육 교수학습방법적 측면의 강화 필요됨.

Session 3 [사례발표]

[선도대학] “서울대 사례 발표”

문인철 선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문인철 선임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I.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

1. 연구에 기초한 교육

-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설립된 이래 교내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통일학과 평화학 연구를 지속해 왔음.
 - 지난 12년간 축적된 연구 경험과 네트워크에 기반을 두고 2016년부터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음.
- 현재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기반구축사업’을 통해 교내 다양 한 기관과 연계하여 통일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여기서 얻어진 성과를 토대로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함 (통일기반구축사업 2018년 사업참여기관과 연구주제는 표6을 참조).

2. 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

- 서울대 본부 직속 연구기관으로서, 통일평화연구원은 법대, 사범대,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의대, 약대, 수의대, 미술대, 체육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융복합적인 관점으로 ‘통일연구’와 ‘통일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 정치, 외교, 경제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통일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다양한 현실(사회,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자 함.

3.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결합

- 통일문제를 남북분단의 정치적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맥락에서 바라봄.
 - 전쟁, 갈등, 폭력의 해결방안으로서 평화, 인권, 시민의식의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지향함.
 - 통일교육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문화다양성 이해와 사회통합교육으로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

4. 현장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실제 냉전과 갈등의 접경지역 현장답사와 결합시킴.
 - 분단의 아픔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현장기반 교육프로그램 제공.
 - 이론과 경험의 시너지 효과로 통일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 다른 유사지역과의 경험을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5. 북한이탈주민이 주체가 되는 통일교육

- 서울대 연구진과 북한 출신 연구자들의 연계
 - 이들 연구자들의 멘토링을 통해 통일연구에서 그동안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북한이탈주민이 교육과 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회 마련.
 - 통일 이후 북한의 우수인력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비한 시범사업으로서 통일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를 지님.

6. 국제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의 국제화

- 외국의 대학생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표 1> 2018년 서울대 통일기반 구축사업 사업 선정 현황

번호	소속대학	기관명	사업명	사업책임자
1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통일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	서대현 피부과학교실 교수
2			동북아시아 통일 보건의료 국제협력	신희영 소아과 교수
3		응급의료연구실	북한 재난의료 자원체계 수립	신상도 의학과 교수
4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알차간호요구도 조사 및 통일 이후 알차간호 적정 재공인력 수급 분석	김진현 간호학과 교수
5			통일시대 북한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기기용 간호술기교육콘텐츠 개발	서은영 간호학과 교수
6	치의학 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	통일 치의학 협력 관계 구축 사업	이승표 구강해부학교실 교수
7	수학과 대학	수학과학연구소	남북한 수의학분야 공조를 위한 수의학용어 통일안 및 세포 종합측산기 지원 공조 체계 수립	우희중 수의학과 교수
8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	북한의 약사 양성 제도 연구	박정일 약학과 교수
9	법학대학	고용복지법센터	북한 해외노동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방안 수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	이철수 법학과 교수
10		헌법·통일법센터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법제도 발전방안	이효원 법학과 교수
11	사회과학 대학	경제연구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 적응: 사회적 자본의 역할	김병연 경제학과 교수
12		국토문제연구소	통일시대 국토공간의 통합적 진단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김대현 지리학과 부교수
13		사회발전연구소	중국-북한 접경지역 통일평화교육인력 양성 통일인력인프라 구축 사업	장덕진 사회학과 교수
14		아시아연구소	한반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지구(Future Earth)' 국제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박수진 지리학과 교수
15	인문대학	역사연구소	근현대 개성(開城) 관련 자료 집성과 목록 정리	김태웅 역사교육학과 교수
16		중국어문화연구소	중국과 대만의 언어 통일 정책 분석과 DB 구축	이창숙 중어중문학과 교수
17		문화유산연구소	북한의 문화유산 관리 현황 연구	이선복 고고미술학과 교수
18		한국어문화연구소	<통일 문법>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중국 조선어 연구지들의 학술 교류	황선엽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19			통일 시대 탈북문학의 접근과 전망 3: DB 총정리와 연구 성과의 종합 단계	방민호 국어국문학과 교수
20		알티아학연구소	북한지역 무속서사시 자료 연구: 국립영상자료원 소장 망북당 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조현설 국어국문학과 교수

번호	소속대학	기관명	사업명	사업책임자
21	공과대학	통일한반도국도인프라센터	통일한반도의 적정 도시 모델구상	정창무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2		동아시아교류개발센터	북한지역 건축문화유산의 구축과 활용 연구	전봉희 건축학과 교수
23		에너지자원기술연구소	북한 구리광산에 대한 투자 개발 전략 연구	송재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24	농업생명대학	북한 해양농업연구소	통일대비한라북 농업협력 체계 구축 사업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임정빈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25	자연과학대학	과학문화연구소	기초과학분야 남북 교류협력 증진방안 연구: 대학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상옥 자연과학대학부교수
26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탈북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조사 및 자녀 양육지침서 개발	진미정 아동가족학과 교수
27		대북영양정책지원실	북한 이탈주민의 식생활적응과정 및 식생활교육 현황 조사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
28	사범대학	스포츠과학연구소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니영일 체육교육과 교수
29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디자인의 역사와 비평적 고찰	김민수 디자인학부 교수
30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북핵위기의 역사적 기원과 대인적 출구를 찾아서: 복합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태균 국제학과 교수
31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통일 이후 북한 공무원 재교육 프로그램 심층연구	정광호 행정학과 교수
32		한국행정연구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통일연구 협력사업	임도빈 행정학과 교수
33			북한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김상현 행정학과 교수
34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DMZ 접경지역 평화예술프로젝트	조경진 환경조경학과 교수
35	본부	아시아에너지환경지속가능발전연구소	북한의 기후변화 적응 담론과 기후변화 교육 실태	홍종호 환경계획학과 교수
36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북한 도시 녹지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박지선 국제농업학과 교수
37		통일평화연구원	한중평화협력포럼	백지운 조교수
38			DMZ 접경지역 군사화 관련 자료 집성	한모나까 조교수
3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파생효과 연구	조동준 정치외교학부 교수
			33개 기관	

Ⅱ.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 전공 영역과 교육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2018년 서울대학교에서 계획한 사업은 연구개발 사업 8개와 강좌운영 사업 10개, 모델 보급 사업 6개 등 총 24개임.

○ 이 중 국고보조금 지원을 통한 세부 사업계획은 아래의 <표 2>과 같음.

<표 2> 2018년도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선도대학 사업

사업 성격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연구 개발	교과목 개발지원	- 5개 단과대 통일교육 강좌개발 ·간호대: 통일보건의료 ·사회대: 통일과 평화의 신지정학 ·사범대: 통일교육 아카데미 ·공대: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리더 양성 ·의대: 통일보건의료전문인력양성-통일의료 - 통일평화관련 교과목 개발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연구개발(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 다문화시대의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콘텐츠 개발 및 영상제작 -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통일평화교육의 혁신과 새로운 강좌모델 구축방안 연구 -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통일의식 실태조사	- 대학통일교육 설계를 위한 중·고등학생 통일의식 실태조사 ·서울사대부중, 사대부여중, 사대부고생 500여명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통일의식 실태조사 시행
	학위논문지원	- 통일관련 석사 및 박사논문 지원 (석사 6건, 박사 5건)
강좌 운영	통일관련 강좌운영 지원	- 북한, 통일,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 체제전환, 평화 등 통일과 평화 관련 정규 교과목 및 계절학기, 신입생 세미나 등 지원

국제하계대학 강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 국제하계대학에 참가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북한 및 통일강좌를 개설, 강사로 지원
단과대 통일특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대, 사회대, 사범대, 공대, 의대 등 서울대 내 5개 단과대를 중심으로 전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통일교육을 연계하는 특강을 운영
통일법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법의 개념과 특징 ·남북관계의 법률체제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 ·북한인권법의 이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남북한 헌법의 비교 ·통일합의서의 주요 쟁점 ·통일헌법의 준비 ·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
R&D Initiatives in healthcare in DP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다각적 실천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공유의 장 - 관련 학술정보를 예비 보건의료 인력들과 함께 공유하고 토론 - 통일 보건의료 관련 학문교류 및 통일의료 의식 배양
통섭형 통일국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시대 국토공간의 이해를 위한 통섭형 통일국토교육과정 운영 -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확대 추진 - 해외 전문가 초빙 네트워크 구성
북한이탈 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종합대학 각 학부별 졸업생(외문학부, 수물학부, 생물학부, 철학부, 어문학부 등)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
시민강좌(한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한길사 공동기획, ‘평화학교’(시민을 위한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무기를 바라보는 북한의 마음 ·관문점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꿈 ·동북아의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포레랑스와 사회적 평화 ·핵무장 국가 북한 앞에 선 세계와 한국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 ·다시 꿈꾸는 통일= 한반도 평화 연합

	동아시아 대학생 평화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3대 동아시아 평화인권 캠프 - 한국의 서울, 부산, 전남, 제주 네 개 지역 학교들과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APU 대학이 모여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는 캠프 - 올해는 2018년 8월 20~24일, 4박 5일 동안 리츠메이칸 대학 주최로 오사카에서 진행, 대주제는 ‘재일조선인’
	철원지역 현장연계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 통일·평화 현장학습 강좌운영 - 자유전공학부 2018학년도 신입생 약 125명을 대상으로 철원 지역의 통일·평화 관련 역사와 사회사 등을 3월에 진행했음 - 4월에는 철원 지역 현장학습을 진행했음
모델 보급	서울대-강원대 계절강좌 연계 교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화천 하나원, 고성 DMZ 박물관 등 공동답사 및 공동 세미나 운영
	한국-대만 통일평화 커리큘럼 출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사업: 동아시아 평화연구의 새로운 페다고지를 향하여 - 한국-대만, 평화교육 사례 연구 및 관련 결과물 출간
	통일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기 통일아카데미 - 강좌운영 및 현장체험학습(DMZ 답사)
	평화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기 평화아카데미 - 강좌운영 및 현장체험학습(제주도)
	플래시몹: 통일을 춤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문화공감 “통일을 춤추다3” - 서울대학교 및 타대학(1~2곳)의 구성원 및 예술인 참가 - 댄스 플래시몹을 통한 통일관심 확대
	교직원 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교직원을 대상, 북한 및 통일교육 전문가 강연 진행 - 강원도 양구 지역 현장학습

Ⅲ. 주요 사업 내용 소개

1. 연구개발

○ 단과대 통일교육 강좌개발

- 서울대학교 5개 단과대학, 간호대·사회대·사범대·공대·의대를 대상으로 통일교육 강좌 개발.
- 간호대학: 통일보건의료 관련 강좌.
- 사회대학: 통일과 평화의 신지정학 강좌.
- 사범대학: 통일교육 아카데미 관련 강좌.
- 공대: 북한 국토인프라 구축 프로그램과 관련한 리더 양성 강좌.
- 의대: 통일보건의료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통일의료 강좌.

○ 통일평화관련 교과목 개발

- 현장연계형 통일·평화 관련 교과목 개발을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음.

○ 다문화시대의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다문화시대의 통일문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남북한 문화 차이에 대한 다문화적 관점 정립.
- 통일문화 수용성 조사 도구 개발 및 학습자의 통일 수용성 조사.
- 통일 대비 단계에서 실행 가능한 체계성 및 완결성을 갖춘 통일문화교육.

○ SNS 기반 통일교육안 개발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
- 사범대학 예비교사들의 수업 활용을 위해 SNS기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 개발된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을 통한 전국 대학생들의 통일 역량 강화.

○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

- 학생주도형 통일교재 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응, 생각, 태도를 통일강좌에 수용·반영하고 면담 자료를 체계화, 자료화해 국제적 맥락을 고려한 통일평화 강의교재를 개발하고자 함.

○ 통일치의학 교육과정 개발

- 남북 치의학의 동질성 회복 및 통합 기틀 마련.
- 북한 치의학 현황 파악 및 통일치의학 관심 고양.
-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 대학통일교육 설계를 위한 중·고등학생 통일의식 실태조사

- 서울사대부중, 사대부여중, 사대부고생 500여명에 대해 설문지를 통한 통일의식 실태 조사를 시행.
- 데이터 코딩을 통한 결과 분석 및 대학 통일교육 모델 설계에 주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함.

○ 학위논문지원

-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 주제를 대상으로 한 학위논문지원 사업 공모.
- 박사 5편, 석사 6편 총 11편의 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

2. 강좌운영

○ 통일관련 강좌운영 지원

- 북한, 통일,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 체제전환, 평화 등 통일과 평화 관련 정규 교과목 및 계절학기, 신입생 세미나 등 지원.
- 1학기 및 2학기 그리고 계절 학기를 포함하여 총 12건의 통일관련 강좌를 선정하여 지원.

<표 3> 통일관련 강좌운영 지원 사업

강좌명	참여인원	소속학과	담당교수
신입생세미나: 다큐멘터리로 본 통일	2학기 진행예정	정치외교학과	조동준
북한지역연구특강	2학기 진행예정	지리학과	허정화
공법 I (헌법과 정치제도) *통일헌법(로스쿨)	59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신입생세미나: 통일법 세미나	2학기 진행예정		
통일법의 현황과 과제(대학원)	2학기 진행예정		
통일법 학위논문 세미나(대학원)	2학기 진행예정		
신입생세미나: 문학으로 생각하는 북한 문제	17	국어국문학과	방민호
영상사회학	47	사회학과	정근식
북한학개론	206	윤리교육과	박성춘
통일교육론	15		
통일교육연구방법론(대학원)	16		

○ 국제하계대학 강좌 지원

- 서울대 국제하계대학에 북한 및 통일관련 강좌를 개설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문제의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함.

○ 단과대 통일특강 지원

- 5개 단과대(간호대, 사회대, 사범대, 공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통일교육을 연계하는 특강 운영.

○ 통일법 강좌

- 통일법에 대한 저변 확대.
-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법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통일법 강좌 진행.

<표 4> 통일법 강좌 세부 진행 내용

차시	강사	강 의 주 제
1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대)	통일법의 개념과 특징
2	송진호 판사(의정부지방법원)	남북관계의 법률체계
3	한동훈 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4	김은정 변호사(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법제도
5	김태현 검사(법무부)	북한인권법의 이해
6	장소영 검사(부산지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7	김진욱 연구관(헌법재판소)	남북한 헌법의 비교
8	박종원 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통일합의서의 주요 쟁점
9	김우진 변호사(주식회사 교원)	통일헌법의 준비
10	이효원 교수(서울대 법대)	통일을 위한 법적 과제

○ R&D Initiatives in healthcare in DPRK

-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다각적 실천방향을 함께 제안하는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R&D Initiatives in healthcare in DPRK 프로그램을 진행.

<표 5> R&D Initiatives in healthcare in DPRK 강의 주제

주차	세부 주제
1	Experience of SNUCM 2002-2009 – Program for Children in North Korea : infrastructure for health care, improvement in Nutrition, Environment for medical education
	Aid to DPRK, South Korea Administration(since 1990) – Trends of foreign assistance to DPRK
2	Concept of North-South Korea Joint Health R&D initiatives – a roadmap towards unification era
	Current Public Health Research Areas in DPRK – Medical Journals in DPRK(Chosun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 Academic articles, research reports, dissertations in South Korea(1974~2016)
3	Public Health Priorities in DPRK – Communicable Diseases – Maternal & Child health – Non-communicable Diseases(NCDs) – Causes of Death in North and South Korea
	Promoting North-South academic exchanges about natural products – Technology trends research on development of new natural drug through analysis of academic literature in North Korea
4	R&D Project Prioritization
	Developing appropriate technology&products for dental treatment in DPRK Establishing DB on natural products in DPRK & Discovering food and drug materials through building the library

○ 통섭형 통일국토교육

-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질·양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북한 지리와 공간 환경에 대한 이해 제고.
- 통일국토교육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연구자, 북한 접촉 경험 실무진, 강사 등을 초빙해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공학 분야를 포괄하는 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북한이탈 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

-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남북한 교육내용에 대한 비교, 통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 김일성종합대학 외문학부, 수물학부(자연공학부), 생물학부, 철학부, 어문학부 등 해당 학부 출신 10여명의 졸업생들을 초청해 진행.

<표 6> 북한이탈 지식인과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

날짜	내용	발표자
5. 7	북한 주택 매매시장 현황과 주택건설 발전추세	김현성 (평양건축종합대학)
5. 21	북한 식품과학기술 현황 및 추세(지방공업을 중심으로)	조충희 (평성수의축산대학)
5. 28	북한의 8.3소비품 생산기술에 대한 고찰	윤경은 (함북종합대학 공업설계)
6. 4	북한의 만청산 연구소와 생물학연구 현황	김형수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
7. 2	북한의 공업도자기생산기술 현황과 추세	오영철 (경성도자기 단과대학)
7. 16	북한의 채취공업기술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고찰(석탄산업을 중심으로)	최설 (순천공업대학)
7. 23	북한의 생체전자공학기술 현황	이가형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생물학)
8. 20	북한의 전자공학 현황	문영순 (평성리과대학)

○ 철원지역 현장연계 통일교육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2018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철원 지역 통일·평화 관련 역사와 사회사 등에 대한 강좌 진행.

○ 평화학교(시민강좌)

- 4월 2일부터 5월 28일까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길사가 공동 기획한 시민을 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인 ‘평화학교’ 진행.

<표 7> ‘평화학교’ 강의 프로그램

	일정	강사	제목
1강	4/2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핵무기를 바라보는 북한의 마음
2강	4/9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판문점 정전체제와 한반도 평화의 꿈
3강	4/16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 전 통일부 장관)	동북아의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4강	4/23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북한 인권 개선, 어떻게?
5강	4/30	홍세화 (소박한자유인 대표)	톨레랑스와 사회적 평화
6강	5/14	이삼성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핵무장 국가 북한 앞에 선 세계와 한국
7강	5/21	정태인 (갈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안보와 경제라는 두 축
8강	5/28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다시 꿈꾸는 통일 - 한반도 평화연합

○ 대학생 평화캠프

- 한국의 서울, 부산, 전남, 제주 네 개 지역 대학교들이 모여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평화인권 캠프 진행.

3. 모델 보급

○ 서울대-강원대 교류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계절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원도 화천 하나원 및 고성 DMZ 박물관 등 공동 답사와 공동 세미나를 운영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 이를 통해 서울대학교 통일교육 모델을 개선·발전, 확산시키고자 함.

○ 한국-대만 통일평화 커리큘럼 출판

- 통일평화교육에 대한 현장교육 사례를 충실히 소개하는 교육성과물 출판.
- 통일평화교육 사례 연구 및 관련 결과물이 담긴 도서 발간 예정.
- 통일평화교육 현장으로 한국의 금문도와 대만 타이난 소개.

○ 통일이카데미

- 통일이카데미(2007년부터 매년 개최)는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올해 제18기를 배출하고 분단체험학습을 실시.
- 중·서부 DMZ를 방문해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 및 안보현실을 이해하는 활동.
 - 남북출입사무소 및 도라산역 방문, DMZ 체험 활동

○ 평화아카데미

- 평화아카데미는 통일이카데미와 짝을 이루는 강좌로 2013년부터 시작.
- 올해로 제6기 평화아카데미 강좌운영 및 현장답사 진행.
 - 현장답사로는 평화의 섬 제주도를 선정해 제주 4.3 사건에 대한 이해, 4.3 평화공원 방문,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병행하는 활동을 진행.

○ 예체능 연계 통일문화활동 지원

- 6월 1일 서울대학교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통일을 춤추다’ 플래시몹 공연을 성공적으로 시행.
- 플래시몹의 음악 제작, 촬영, 편집 등의 작업 등 총 40여명의 서울대학교 학생이 참여.